

겨울간

1992. 11. 12

중국을 주께로

통권제 20호

중국어를 가르치는 교과서

중국을 주제로

1992. 11. 12 통권 20호

목 차

말씀

긴급하고 중요한 선교 / 임순삼 목사 2

특집

매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 극동방송 4

사막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 고 김성하 목사 6

탐방 · 스케치

군사로 다니는 자들 / 장혜숙 9

서광교회를 찾아서 / 박혜영 10

연구 · 세미나

중국선교와 한중수교 이후 / 이요한 12

중국의 종교정책 16

인물 · 간증

一當千의 필봉을 휘두른 문서 사역자 張文開 22

생명의 부활 / 董福 28

선교상식

중국어로 찬양을 31

중국의 민속품물이야기-중국의 가족과 계승 32

중국여행상식-중국식 화장실에 관하여 38

선교참고도서 40

그림으로 배우는 선교중국어 42

소식 · 기도

최근중국동향 44

중국을 위한 중보기도 52

알림 53



긴급하고 중요한 선교

임순삼 목사(예장 통합 총회선교부)

1.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는 선교

선교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업무가 아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업무이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구원역사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역사이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최대의 업무이다.

이사야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사2:2) 하면서 하늘과 땅으로 중인을 삼고 구속의 예언을 시작한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하는 젊은 제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성부 하나님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엄히 선교할 것을 명한다고 하신다.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나 복음선교의 책임을 부여받는 엄숙한 선교사 파송을 받는다. 사람은 세상 삶을 살면서 온갖 경우를 겪기도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난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며 궁극적으로는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죽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복음으로만 해결된다. 말씀을 들음이 첫걸음이고 듣고 믿고 구원받음이 삶의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포자가 있어야 하고 파송자가 있어야 선포할 수 있다. 보내는 선교사와 파송받는 선교사의 연합된 일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구원받는 백성이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을 말한다. 선택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선택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되어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

아서는 일이고 다시 한 번 더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을 때, 각자 은사에 따라 순종으로 특별한 직분을 받는 것인데, 그 중 선교사로의 선택은 귀한 선택으로 두번째 선택받는 일이다. 장차 주님의 나라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모인다. 그리고 오래 참고 고난을 감수하며 받은 은사대로 맡은 직분을 다한 사람들이 상급을 받는 나라요 영생의 나라이다.

2.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 해야 하는 선교

전천후 선교이다. 모든 여건이 좋든지 나쁘든지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대접을 받는 시대 혹은 사회이든지, 핍박과 구박과 멸시를 받는 시대 혹은 사회이든지 복음은 선포되어야 한다. 복음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고 지구상에 태어나서 삶의 길이 있는지 없는지의 소식도 듣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야 된다면 너무도 애처롭고 가련한 일이며 억울하지 않은가?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믿는 성도와 교회에게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셨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권하라고 하셨다. 오늘의 세상엔 개인이 자살할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하고 있다. 고민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생명은 일 초도 사람이 연장시킬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는 모든 힘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길을 깨우쳐 납득시키고 생명의 길을 확신시키며 훈계하고 교육하여 회개하도록 권하고 그리스도인 되게 권해야 한

복음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고 지구상에
 태어나서 삶의 길이 있는지 없는지의 소식도
 듣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야 된다면 너무도 애처롭고
 가련한 일이며 억울하지 않는가?
 그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가?

다.

오늘의 사람들은 자존심이 지나칠 정도로 강하다. '가르친다' '준다' '돕는다'는 단어에도 신경이 날카롭다.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고 주고 돕는다는 말인가? 식민주의적이요 제국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단어들이라고 반발한다. 이유있는 주장이다. 사람들의 과오이다. '가르치고 주고 돕는다'는 좋은 명분으로 인간적인 욕심을 차리는 일이 너무나 많기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 선포할 수 없는가?

길이 있다. 나눔의 선포이다. 즉 나의 신앙고백이다. 말씀 선포의 신앙고백적 선포이다. 선포하는 자가 본래 무지몽매했던 사실과 비참한 최악의 상황에서 구원받은 사실과 굶주림과 혈벗음의 가난 그리고 온갖 환란과 겪은 고통 혹은 지금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상대의 것도 나눌 때 신뢰와 사랑이 생기고 동지가 되고 같이 구원의 기쁨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3. 사람들이 진리를 거역할 때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해야 하는 선포

성경은 역사 속에 안타까운 때가 있다고 하였다. 종말의 징조일 것이다.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바른 교훈은 받지 않고 귀를 가려워하면서 각자의 사욕을 쫓아가는 것도 무모한데, 더 열심히 사욕을 쫓기 위해 사욕의 스승을 찾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 타락시키는 이야기, 최악으로 몰아넣는 이야기, 멸망과 파멸로 몰아넣는 이야기를 즐기는 때가 이른다고 하였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너도 유혹받고 나도 유혹받는 시대이다. 말

씀 선포자는 선포해야 한다. 성령의 힘으로 선포해야 한다. 마귀는 핏박과 모욕을 가하게 사람들을 충동할 것이다. 선교자는 자존심도 여지없이 짓밟히고 온갖 수모를 당하기도 할 것이다. 그래도 오래 참아야 한다. 정말 견딜 수 없도록 화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오래 참아야 한다. 나중엔 낙담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오래 참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는 가르쳐야 한다. 굶주림이 올지도 모른다. 오래 참으며 가르쳐야 한다.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사람이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가 사람의 힘은 불가능하다.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힘을 주신다.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선교사는 평상시의 영성훈련이 필수적이다. 전도인의 일을 하여 네 직무를 다하라고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다.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말은 달란트대로 직무를 다하고 그러면서도 전도인의 일을 수행하라고 하셨다.

선교사의 가슴엔 세계가 담겨 있다. 세계를 위해 기도할 힘이 생긴다. 영웅 호걸은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고 제국주의자들은 세계를 다스리고자 한다. 그러나 선교사는 세계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도록 봉사하고 세계 속의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무엇이든 나누고자 한다.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를 드린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요, 만물이 소생하고 세계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고 김성하 목사 추·모·특·집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중국 연길기독교 담임 金成河 목사(77세)가 지난 9월 29일 새벽 급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 김성하 목사의 생애를 알아보기 위해 극동방송의 김성하 목사 추모 특집 녹음구성 프로그램 "사막에 넘쳐 흐르는 생수"(방송일시 10월 21일 오후 15:25~15:45 담당 프로듀서 오운미) 원고를 입수하여 극동방송의 양해를 얻어 일반 문장으로 번문화(翻文化) 하여 게재합니다.

김성하 목사는 1916년 4월 24일 평안북도 정주군 덕원면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일흔일곱, 결코 적은 나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까지도 팽팽한 목소리로 설교를 하던 건강한 분이였기 때문에 김성하 목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980년대초 중국에서 瀋陽의 西塔교회가 소수 민족을 위한 최초의 공인교회로 復堂되었고 吳愛恩 전도사(뒤에 곧 목사 안수를 받음)가 담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조금 지나 延吉교회가 복당되었는데 연세 많은 목사님 한 분이 계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중국선교 실무자들은 "중국에 목사님이 계시다니 도대체 누군가?" 하고 축각을 곤두세웠다. 그분이 바로 김성하 목사였다. 최근까지 중국에 동포 목사가, 오애은, 김성하, 고동욱, 이미란, 박계승, 지인화, 유두봉 등 일곱 분이 있다가 그 가운데 제일 원로인 김성하 목사가 세상을 떠나 이제 여섯 분이 되었다. 그러나 3,4년 전까지도 중국 전체에 동포 목사는 두 분(오애은, 김성하)뿐이었고 그 가운데 김성하 목사는 延邊의 유일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말할 나위 없이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다.

흔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인 교회의 목사라고 하면 그 진실성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고 김성하 목사를 아는 분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성직을 감당하느라고 제한은 있었을지 모르나 김 목사님이야말로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고 하늘 나라의 상급이 컸을 목사님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성하 목사는 앞에서 말한 대로 3·1운동이 일어나기 몇 해 전인 1916년에 평안북도 정주군 덕원면의 한 가정에서 5남 1녀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나 유아시절에 부모를 따라 중국에 갔다.

중국 通化에서 지내다가 주님의 소명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신학원에서 고학을 하며 신학을 공부했다. 1943년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당시 奉天, 현재의 심양에 있던 만주신학원을 졸업했다고 전해진다. 신학공부를 마친 김성하는 遼寧省 開原교회의 전도사로 일하게 되었다. 당시 개원교회는 현재 한국 성서학교 명예학장인 康泰國 목사가 담임하고 있었는데 1945년 해방을 맞아 강태국 목사가 600여 명의 교민들을 인솔하고 귀국했기 때문에 인도자가 없었다.

1947년, 그의 나의 결혼두 살 때 김성하는 봉천교회의 봄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47년 봉천교회의 봄 노회는 중국 대륙 동북 지역에서 열린 마지막 노회가 되었다. 중국이 공산화되어 교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교회가 문을 닫아 목장을 잃게 된 김성하 목사님은 집단농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1950년부터는 통화 병원 약국으로 배치 받았고 그곳에서 틈틈히 의술을 익혀 의사고시에 합격했다. 의사가 된 김성하는 1953년에서 1983년까지 30년 동안 통화중의원(通化中醫院)에서

의사로 일했다. 중의원은 우리 말로 하면 한의원이 된다. 뒷날 김성하 목사는 의사로 일하던 때를 회상하며 의사의 왕진 가방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말한 일이 있었다.

1970년대말, 중국이 개방정책을 취함에 따라 교회도 문을 열기 시작했다. 김성하 목사님은 1981년부터 교회의 중요 행사 때마다 예배를 인도하다가 1984년 4월 연길기독교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다.

연길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주 인민정부 소재지이니만큼 연길교회의 위치도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아마 중국을 방문한 여행자들은 거의 빠짐없이 연길교회를 들렀을 것이다.

연길교회가 언제 설립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연길의 옛 이름은 局子街인데 국자가교회는 1911년에 캐나다 선교사 바커가 설립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국자가교회가 연길교회의 전신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의 연길교회 교회당은 58년 전인 1934년에 건립되었다. 연길교회 역대 담임자 가운데 桂化三 목사님이 지금 캐나다에 생존해 있다.

중국의 공산화에 따라 연길교회는 1947년에 폐쇄되었다. 그 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다가 金元培 장로 등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 가내교회 형태로 유지되어 왔다. 1981년 9월 20일에는 예배당을 도로 찾아(復堂) 활발하게 모이기 시작했고 1984년에 김성하 목사가 부임하여 본궤도에 올랐다. 현재 새로운 교회당을 짓기 위해 노력중인데 국내의 한 대형교회가 이 일을 도우려 하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하 목사가 숨을 거두면서 가장 아쉬워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점일 것이다.

김성하 목사의 설교는 복음의 원칙에 너무나도 충실한 설교, 칼날 같은 설교, 힘 있는 설교로 정평이 나 있다. 김성하 목사의 직함은 연길기독교교회 담임목사였으나 사실은 연변자치족자치주 안에 있는 다섯개 시(延吉, 圖們, 龍井, 敦化, 暈春), 세개 현(安圖, 汪清, 和龍)의 모든 교회와 예배 처소를 모두 돌보아야만 했다. 그 얼마나 분주하고 피곤한 나날들이었을까.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김성하 목사는 도문교회에서 열린 처소 지도자 강습회를 인도하였다. 이 강습회는 매일 새벽 4시에서 밤 열시까지 진행되었는데 김성하 목사님은 이 모든 과정을 도맡다시피 하였다.

강습회가 끝나는 9월 20일 백여 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연길로 돌아온 김성하 목사님은 과로에서 오는 감기로 고생하였다. 9월 27일 주일을 지킨 김성하 목사님은 아무래도 안되겠다며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새벽 세시경에 조용히 눈을 감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 갔다.

10월 1일 드러진 김성하 목사님의 영결 예배는 버스 일곱 대가 동원된 큰 규모 속에서 중국의 관례를 따라 화장으로 치뤄졌다. 하나님은 일꾼은 잠 재우시나 일은 계속하시는 분이요 연길교회 출신의 柳斗奉 전도사가 남경금릉협화신학원을 졸업하고 1988년 7월, 연길교회 전도사로 부임해서 김 목사를 돕다가 지난 1월 목사 안수를 받고 연길교회 부목사가 되었다. 지금 연길교회는 젊은 중 유두봉 목사를 담임 목사로 하여 계속하여 연변족 자치주의 중심교회로 복음전도 행진의 선두에 서 있다.

유두봉 목사는 중국에서 신앙을 지키느라고 온갖 고초를 겪고 세상을 떠난 유치화 장로의 아들이다. 유두봉 목사는 지난 8월 중국기독교 대표단의 한 사람으로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이 때 유두봉 목사를 만나 인터뷰를 한 일이 있는 극동방송 보도부 朴昌奎 기자는 유두봉 목사로부터 날카로우면서도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고난으로 가득 찬 시대를 보내며 중국이라는 사막에 넘쳐 흐르는 생수 역할을 하던 노종은 갔다.

우리는 삼가 옷깃을 여며 김성하 목사의 영전에 경의와 조의를 표하며, 그리고 미망인 李賢淑 여사를 비롯한 유족들과 연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복음의 생수가 뿜릴 소리 내며 흐르도록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해야겠다. ☉

사막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이사야 43:18~21)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당시 유대 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남북으로 분열된 북편 이스라엘이 앗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대 나라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왕과 왕족과 모든 고관대작과 모든 상층계층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고 성전과 왕궁의 모든 금은기명마저 몽땅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예루살렘에는 소나 양을 치는 소보기, 양보기들과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들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처지로 떨어진 유대 백성들이여, 너희는 옛적에 너희 조상들이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 바로의 학정 아래서 해방을 받아 나올 때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넌으며 애굽의追兵들을 홍해 바다 가운데 장사를 지나게 한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지난날 그때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바벨론의 제국의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된 처지에서도 매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 43:18,19)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넌 일보다 더 큰 일, 새 일을 행할 테니, 즉 바벨론 제국의 포로에서 고국 귀환이 있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고국귀환을 아래와 같이 비유로써 선포합니다.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사 43:19,20) 여기서 말하는 광야, 사막, 물, 강, 시랑, 타조는 모두 황폐한 이스라엘 유대를 비유로써 교훈을 주시기 위해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와 이스라엘을 왜 광야와 사막이라고 하였습니까?

광야란 인가 없는 황막한 무인지경을 가리킵시오, 사막이란 풀 한 포기, 시냇물 한 줄기도 없는 메마른 모래벌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포로되었던 유대가 광야와 사막 같이 황폐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물과 강이라는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가 강수와 같은 기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 말씀이 바로 기원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 스룹바벨과 함께 4만 3천 명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고 기원전 458년에는 에스라와 함께 일천팔백 명이 돌아와서 퇴락한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수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바벨론으로 옮겨갔던 금은기명을 다시 가져오고 제사장들을 레위 족속 중에서 선발하여 거룩하게 성별하고 다시 거룩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써 융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 말씀이 가깝게는 유대 나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 중건과 제사와 예배로써 이루어졌고 중국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북 삼성을 만도로 했던 소위 만주제국이라는 허수아비 나라가 1945년 8·15와 함께 넘어가자 조선족 기독교총회(만주총회)가 동시에 무너지면서 수만 명의 성도와 천여 명의 교역자들 - 목사, 전도사, 장로, 외국 선교사들이 몽땅 몽땅 떠나 가고 남은 이 땅은 영적 의미에

누가 성경과 찬송을 이 땅에서
다시 출판하고 성전 꼭대기 위에 속죄구령의
십자가를 다시 드높게 세우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서 볼 때에 황폐한 광야, 물 없는 사막과도 같은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넓은 지역에서는 예배당에서 울리던 종소리, 성도들의 찬송소리, 기도소리, 하나님말씀의 강론과 외침은 완전히 사라졌고 종소리가 들리더니 이 투쟁, 저 투쟁, 문화대혁명, 투쟁, 투쟁으로 이어지던 이 땅 위에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강수는 완전하고 갈되어, 사막 가운데서도 메마른 사막으로 되버렸습니다.

성전 꼭대기 위의 십자가는 찍혀 내렸고 성서는 빼앗겨 불더미에 던져졌고 성전은 자동차 수리공장이 되어버린 때에 누가 성경과 찬송을 이 땅에서 다시 출판하고 성전 꼭대기 위에 속죄구령의 십자가를 다시 드높게 세우고 성전에서 모더니 망치니 공장시절에 쓰던 모든 것들을 끄집어 내고 다시 수리하여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중국 대륙에서 신앙의 자유를 실시하면서 8년 사이에 上海, 南京, 福州 등지에서 중국말 성경 신구약성서合訂本과 신약전서부 시편을 발행한 것이 300만 권에 가까우며 1988년 이 한 해에만 출판 발행한 것이 90만 책이 됩니다. 전국에 신학교는 모두 12곳이 되는데 모두 漢族(중국인)신학교이고 56개 소수민족이 있으나 소수민족 신학교는 하나도 없는 실정으로 그저 한족 신학교에서 소수의 소수민족 신학생들이 한족 신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12곳 신학교에서 배양을 받는 학생이 6.7백 명 되며 교회 간판을 걸고서 예배 드리는 교회당 수가 4천이 넘으며 가정집교회 예배드리는 처소가 몇만 곳 된다고 88년 9월호 「天風」(중국교회의 공식 간행물)을 중국 전국교회의 정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내 교세 실정을 놓고 보면 89년 1/4분기까지 간판을 건 정식 교회수가 21 곳인데 그 가운데 15곳이 조선족 교회이요, 6곳이 한족 교회입니다. 조선족자치주내 교회에서 83년도부터 장로 안수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열 분 장로를 안수했습니다.

연길교회에서 배양한 柳斗奉 교사(전도사)가

88년 7월 남경신학원을 졸업하고 돌아와 목회사업에 一臂之力을 영광스럽게 담당하고 있으며 87년 7월부터 우리 州내 네 명 신학생이 동북신학원에서 배양을 받고 있고 88년도 부터 한 달 내지 40일씩 하는 성경학습반에서 167명을 배양하여 의무전도인의 직임을 감당케 하고 있으며 제가 88년도에 주내외에서 조선족과 한족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푼 숫자가 1,423명이고 입교 문답을 거친 분이 14분입니다. 81년도부터 계산하면 무려 4천여 명이 될 것입니다.

87년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청년 사경학습교류대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신앙운동을 불러일으키며 89년도에는 全州(연변조선족자치주) 각 지교회 남녀 청년연합회를 조직하기 위한 준비工作(사업)과 아울러 말기 격려대회까지 가졌습니다.

88년도에 연길교회에서는 성경보기운동을 해서 53,763장의 성경을 閱讀하였고 236절의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였으며 72명의 초신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88년도에 20차례의 철야기도를 했으며 89년도 연길교회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3일간 금식기도를 하고 건축헌금한 것이 2만 7천 원인데 이 숫자는 우리 계획이 1/5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개인기도와 예배에서의 기도와 철야기도와 금식기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제목이 교회당 신축입니다.

88년 11월초에 성경 출판과 찬송가 3판 출판을 위해 남경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심양 서탑교회에 들렸는데 마침 서울 충현교회 趙仁濟 장로님을 만나뵈게 되었습니다. 조 장로님께서 중국 여행을 떠날 때 충현교회 당회장 李鍾潤 목사님의 부탁 두 가지를 받아가지고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두가지 부탁이란 심양에 신학교를 세울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吳愛恩 목사님을 한국에 초청하면 능히 올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오 목사님은 두 가지 물음에 다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연변에는 세울 수 있다고 하여 오 목사님과 조 장로님과 저와 金元培 장로님이 연변에 조선족 신학원을 세우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광야와 사막이 변화되되
 이만저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인간세상에는
 다시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슬픔없고 죄악없고
 악한 것이 없는, 동경하던 낙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에게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대한 경제적 재원과 교수, 도서 등등 모두 빈손입니다.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고전1:27,28)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 보내기 위해 하나님의 손을 우러러 보며 우리 아바 아버지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사 43:20)이란 불신사회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서 크게 역사하시는 큰 빛을 보고서 자진하여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88년 12월 25일에서 29일까지 세 번 예배 때 믿기로 결심하신 분이 50여 명 되며 89년 들어 5월 31일까지 새 신자 통계가 206명입니다. 그분들은 듣고 보니 이 교회에 과연 진리의 빛이 있구나, 사랑의 빛이 있구나, 정확한 인생의 길이라고 눈부신 각성과 참신한 결의로써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것 올시다.

이리하여 황막한 광야 같고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이스라엘과 유대는 이사야서 51장에서 이르심과 같이 “대저 나 여호와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사 51:3)의 축복을 받습니다.

88년도 헌당예배를 드린 곳이 우리 주내에서 모두 네 곳인데 그 첫번째가 細鱗河 예배당입니다. 細鱗河 골짜기 끝에 뒤에 과수원이요 앞에는 작은 시내가 흘러 내리는 곳에 아담하게 건평 600㎡기와 시멘트로 세워졌으며 두번째로는 西城 예배당인데 복잡한 동리를 벗어나서 역시 과수원 기슭, 地勢 두드러진 곳에 100㎡시멘트 기와이며 세번째는 威虎嶺 예배당인데 높은 곳에 150m 벽돌 기와로 훌륭하게 우뚝 섰으며 네번째는 萬寶 예배당인 바 만보진 동쪽 입구에 정면은 2층으로 건평170㎡로 된 漢族 교회올시다.

圖們 교회는 지난 해 3층까지 쌓아 올렸고 금년 7월에 가서는 계획대로 4층 예배당을 준공하고 헌당예배를 드릴 계획이며 또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에서만 금년에 헌당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關道, 朝陽川, 八家子, 開山屯 등 모두 다섯 곳이나 될 것입니다.

연길 예배당은 1934년도에 세운 예배당인데 보시는 그대로 그 부근 변화한 건물들과는 비교가 안되게 형편없이 초라하고 낡아빠진 오막살이입니다. 90년도에는 기어이 부근 빌딩들보다 드높이 십자가탑을 쌓아 올리는 공사를 시작하고 낙성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사 51:3) 하였으니 광야와 사막이 변화되되 이만저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는 다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슬픔이 없고 죄악이 없고 악한 것이 없는, 동경하던 낙원을 이룸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에덴동산, 즉 여호와의 동산으로 되었다함은 아름다운 동산에만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외에 친구를 나눌 수가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성도들과의 친교와 찬송으로 창화하는 삶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는 본교회에서만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할 뿐만 아니라 88년도 9월초에 흑룡강성 東京城교회와 牧丹江市교회에까지 가서 찬양과 말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과 형제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곤 뿔과 굵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시 69:30,31).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내 심령의 거문고에 맞추어 울려 퍼뜨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훈련원 스케치

군사로 다니는 자들

먼저 훈련원의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훈련원 개원을 홍보하면서 몇 명을 보내 주실까? 기대하며 강의실 공간을 쓸고 닦고 칠하는 일에 간사 모두가 며칠을 매달려야 했다. 무척 힘든 노동이었는데 아무도 말은 안했지만 하늘 상급이 있음을 믿는다. 개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다. 잊지 않기 위해 생각날 때마다 준비물을 기록한 메모지를 훑어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는데 '따르릉' 전화가 울린다. 훈련원 주간과정을 지원하고 싶다는 들직한 형제의 목소리다. 이때까지 주간과정에 자매들만 접수되어서 내심 형제를 기다리고 있었던 차라 나도 모르게 갑자기 주변을 떠들썩한 분위기로 만들고 말았다.

원로 중국선교사였던 방지일 목사님을 모시고 이수성결교회에서 조출하게 개원축하예배를 드리고 하객들은 교제를 나누는 동안 주간과정 7명(자매 4명, 형제 3명)은 Q.T(심대영 전도사) 강의를 들으면서 훈련이 시작되었다. 중국어(권희병 전도사) 시간에는 서로의 괴상한 성조를 들으며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웃음이 수업분위

기를 한결 돋우어 주어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데서 오는 부담을 덜고 마냥 즐거워하는 표정들이었다.

지금은 훈련생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발성과 기타를 동급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형제가 있어 서로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야간과정 또한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느라 땀을 흘린다. 업무가 늦은 시간까지 밀려 있을 땐 사발면으로 배고픔을 때우면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와 보람도 느끼곤 한다.

14주 가운데 벌써 7주가 지난 주말과정도 리트릿을 가진 이후에는 일 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지만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고 서투른 성조와 발음을 선생님을 따라 연습하는 모습은 목사님, 집사님 또 전도사님 모두 주일학교 어린이와 같이 아름답기만 한 광경이다. 다들 무척이나 바쁘실 텐데,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씩씩하게 써 놓은 훈련원 주제말씀이 더 크게 다가온다. (글·장혜숙)

서광교회를 찾아서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서광교회를 찾아나섰다.

숲속처럼 불쑥불쑥 솟은 아파트의 정글, 어디에도 약도대로의 서광교회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참을 헤맨 후에야 아파트 끝머리 틈새로 마치 동화나라의 궁궐처럼 다소곳이 숨어 있는 서광교회를 찾아 낼 수 있었다. 교회 옆면은 온통 아파트로 가려 있지만 교회 정문을 연해서 저너머 둘러 싸인 숲, 추수가 끝난 채 넓게 펼쳐진 들녘, 정다운 시골길이 펼쳐놓은 정경은 우리의 탄성을 절로 일게 하였다.

“선교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체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의 심부름꾼으로서 선교한다고 자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직 성실히 그분의 사역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좇아 그분께 성실히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선교입니다.”

유기상 목사. 올해로 서광교회 목회 5년째인 그의 입에서 흘러 나온 선교 철학이다. 1977년부터 1987년까지 독일 서베를린에서 공산권선교와 레퓨지선교를 10년 간, ‘오직 성령의 능력과 믿음’으로 행했다는 그의 선교 경력이 위의 고백적 정의의 무게를 더해주었다.

원래 독산동에 위치했던 서광교회가 이곳에 터잡기는 불과 2년 전, 1987년 어려움이 많던 이 교회가 독일에서 귀국한 유 목사를 만남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교회터를 옮기고 건축을 하는 등을 통해 건물만 웅장해진 것이 아니라, 전교인이 그와 함께 선교적 미션을 키우고 있는 현장이 바로 서광교회의 오늘이었다. 이제 막 하나님의 살아 있는 역사가 꿈틀거리고 젊은 청장년이 주축을 이룬 교회 안의 젊은 열기가 서광교회에 무언가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 기대를 갖게 해준다. 새롭게 안 사

이제 막 하나님의
살아 있는 역사가 고통거리고
젊은 청장년이 주축을 이룬 교회 안의
젊은 열기가 서광교회에 무언가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 기대를
갖게 해준다.

실이지만 이 지역에는 과부가 많아서 결손가정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광교회가 주력하고 있는 사역 중의 하나가 이런 가정과 아이들을 발전적으로 돕는 일이라고 했다. 공부방을 운영한다든가 그들을 초청해 대접한다든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 외에 서광교회가 주안점을 두는 일은 이제 한국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동남아 일대의 노동자들을 거두며 그들을 향해 그들을 치는 일. 이들처럼 가난하게 된 심령이 없는데 한국교회가 그저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 했다. 이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일환이 아니겠느냐고 하면서 서광교회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서광교회와 유 목사가 중국교포선교에 관심을 갖고 '사랑의 집' 사역이나 '월요 전도집회'에 큰 자원을 아끼지 않는 사실이 이런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 목사는 더 큰 선교의 비전과 청사진을 이야기 했다. '선교훈련원'의 구상인데 아무래도 유 목사 자신의 철저한 실천경험의 선교사역의 교훈이 바탕에 깔린 듯 싶었다.

그는 강조한다. 신학교마다 선교를 위해 가르친다고는 하지만 제자의 삶, 기도, 성령의 능력 등은 가르치려 들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선교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사역 중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선교지에 나가는 것은, 마치 치열한 전쟁의 무기로 소총 한 점을 가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영적 제압

무기인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라는 대포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거의 모든 선교현장은 영적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준비가 없다면 문자 그대로 정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체험적 고백이다. 그래서 그는 경기도 양명군 양동면의 넓은 땅을 확보하고 기도하며 선교를 예수님의 훈련방식으로, 철저히 삶을 훈련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우는 선교훈련원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 그 훈련 과정 가운데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이 철저한 언어훈련. 이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가 다소 쉽게 생각하는 듯 싶다고. 예전대 김현희가 간첩활동을 하기 위해 도대체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언어훈련을 거쳤는데 선교에는 그에 못지 않는 준비가 요청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러면서 이런 방면에 뜻을 같이 할 분들과 동역할 뜻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의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중국선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그리고 대담중에 내내 그의 생생한 사역의 증언을 들으면서 과연 선교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다. 아무런 장시간 대담중에 전혀 지루함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선교가 우리 한국교회에 지워진 주님으로부터의 소명이며 서광교회가 이 소명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라. 나아가서 유 목사가 행한 10년 간의 독일에서의 선교사역의 산 경현이 이 교회의 큰 자산으로 살아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글·박혜영)

중국선교와 한중수교 이후

이요한(중국어문선교회 총무)

- 중국선교로 밝아오는 21세기 -

우리사회는 한동안 시한부 종말론자들로 인해 세기말적인 동요를 겪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달리 21세기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해지지 않은 까닭이고, 중국이 복음화되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이다.

21세기는 바야흐로 중국선교의 세기가 될 것이다. 이것은 본인이 중국선교에 동참하고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객관적 정황과 영적 상황이 이를 지적해 주고 있다. 세계 많은 관측자들은 21세기는 태평양시대가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 태평양시대의 주역은 누가 되겠는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의 태평양 인접국가운데 앞으로 중국이 떠오르는 해처럼 부상할 것이라고 하는 객관적 전망이 있다. 그렇다면 영적상황은 어떠한가? '기도함교회' 운동의 제창자인 IVF의 브라이언트는 세계 50여 억의 인구를 선교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해 놓고 있다. 지금 세계인구 54억 가운데 선교의 마음을 지닌 능동적인 크리스천이 2억 정도, 중생의 체험이 없고 선교의 마음이 없는 명목상의 크리스천 및 복음을 들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이 8억, 그리고 나머지 25억이 전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창의적 접근을 요하는 인구라고 한다. 이를 근거해 보면 우리가 중국인구를 세계인구 기운에 1/4이니 1/5이니 하며 막연히 생각할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12억 이상으로 추산되는 인구는 단순히 54억의 12억이 아니라,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주어야 할 25억 중 12억, 즉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이고 동시에 단순히 최대 피

선교국이 될 뿐만 아니라 최대선교국이 될 것이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중국에는 이미 4~5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생의 체험이 있는 역동적인 크리스천이 있다는 사실이다. 1949년 중국 공산화 당시 불과 80만으로 추산되었던 크리스천이 특히 1960 대말의 문화대혁명 이후 15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렀으며, 이는 극심한 핍박상황 속에서 목숨을 내건 전도의 결과인 것이다. 이렇듯 중국교회는 이미 전도의 역량과 정신을 지니고 있다.

- 한중수교와 14全大의 의미 -

바야흐로 21세기에는 중국이 최대의 황금어장이요, 최대선교국이 되리라는 전망을 해 보면서 최근에 이루어진 한중수교와 중국 14全大의 향후 5년간의 정책설정을 이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21세기의 중국선교를 위해 정지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한중수교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14全大의 결정사항을 모 일간지의 사설을 근거로 요약하면 다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당 강령 명시, 사상해방 - 교조주의로부터의 탈피, 대대적인 인사개편.

이는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의 실험단계가 이제 끝나고 본격적인 개혁개방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21세기의 중국선교를 위해 정지작업을 행하고 있다. 이는 쉽게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흐름으로, 폭자가 염려하듯 과거로의 급격한 회귀는 불가능하리라 본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런 가속적인 개방개

중국에는 이미 4~5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생의 체험이 있는 역동적인
 크리스천이 있다. 문화대혁명 이후 극심한 핍박상황 속에서
 목숨을 내건 전도의 결과인 것이다. 이렇듯 중국교회는
 이미 전도의 역량과 정신을 지니고 있다.

혁의 방향으로 가게 될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앞으로의 중국 선교에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기에 우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와 같은 논리로 한중수교가 선교에 유리한 국면과 선교에 불리한 양국면으로 작용하리라고 본다. 원래 국가간의 수교란 상호주의에 입각해 있는바, 한중수교 공동성명의 제 2항에도 '상호존중' '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등의 용어가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양국 상호간에 주권을 존중하는 태도로서 곧 상호법체제를 인정함을 뜻한다. 중국법은 내용적으로 종교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만약 한국교회가 중국선교를 행할 때 이를 중국에 대한 주권침해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중국당국은 중국에 대한 선교를 여전히 和平演變(평화적인 체제전복)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사범의 경우 좀 정도가 약하다 싶으면 형사범으로 처리하고,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체제전복의 죄명을 씌워 정치범으로 다루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선 한중수교가 중국선교에 있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나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 한중수교와 선교상의 허실 -

첫째, 중국여행 제한의 완화로 중국선교여행이 수월해질 것이다. 이제까지는 중국여행이 자유롭지 않아, 중국교회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제는 선교적 안목을 가지고 구체적인 준비를 한 다음 비전트립 등을 통해 중국교회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 중국선교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문화교류의 활성화로 다양한 경로의 선교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종교도 문화 영역으로 한중간의 교회의 교류가 빈번해질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특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상호 유학생을 통한 인적교류이다. 중국정부는 특히 자국의 발전을 위해 유학생 교류 정책에 대단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 5~6만 명씩 나가 있고 심지어 필리핀, 싱가포르 등에도 상당수의 유학생들이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앞으로 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인력양성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본다. 유학생을 보내는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중의학, 동양미술, 중국어문학, 정치, 경제, 음악, 천문학, 통신분야 등 찾기에 따라서는 다양한 학과를 택해 중국대학으로 유학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는 대학 1400여 개의 대학이 산재해 있는데 성 단위로 5~10개의 대학, 전체로는 300여개 대학이 유학생을 받아들일 만한 여건이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3~4년씩 거주하면서 중국선교에 대한 소양, 즉 언어와 문화와 음식 등을 익히면서 캠퍼스 사역의 길도 틀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앞으로 우리쪽으로도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건너오게 될 것인데, 이들을 위해 미션홈 운영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중국교회의 지도자로 훈련시켜 세워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조선족 선교에서 탈피하여 중국선교로의 방향 전환이 용이해질 것이다. 한중 항공협정의 체결 등을 통한 교통의 수월성이 보장되고 양자간 무역 28개 도시 개방 등과 같은 도시개방이 가속화되면 점차 본격적인 중국선교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북삼성에 편중된 조선족에 대한 한국교회의 과다한 물질공약이나, 경쟁적 선교로, 오염된 선교사역이 지양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생각해 보자. 첫째, 한중교회간의 편파적 교류가 예상된다. 지난 8월 중국기독교협회의 회장 韓文藻, 부회장 沈以藩 일행이 한국을 방문해 KNCC와의 합의를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중국에는 지하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정치색 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실상 사실과는 지극히 거리가 먼 내용으로서 그들 자신의 내부문제 가운데서도 지하교회나 가정집회, 자유전도인(순회전도자)에 대한 처리방법이 명시되어 있어, 그들 스스로가 지하교회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가 당착을 보이고 있다. 교세로 보아서도 900만 명 정도의 공인교회에 비해 3,000만 명 이상인 비공인교회(가정교회, 지하교회)가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처지에 한국교회가 자칫 이들을 소홀히하고 삼자교회만 교류하게 될 때 나머지 가정교회 성도들이 받을 상처와 선교적 장애는 어떠하겠는가?

둘째, 과열선교 내지는 개교파 교회중심의 집단 이기주의의 발생이 우려된다. 이런 행태는 중국정부 당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선교의 효과도 감소시키게 된다. 작년에 중국당국으로부터의 항

의를 정부차원에서 받기도 했지만 수교이후는 더욱 강력한 항의를 받게 될 것이다. 더욱이 근래 구소련선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정부 차원의 규제가 행해지리라는 것도 익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낭비적 선교행태를 경계하고 실속 있는 선교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선교 정보유출이 우려된다. 중국대사관이 한국에 개설됐다는 것은 이제 중국당국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자유롭게 정보수집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교의 지속적인 수행과 성도들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세심히 신경을 써야 하리라 본다. 어떤 주보나 기타 잡지의 선교보고 형식의 글에 선교지역이나 이름, 활동내용이 아무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인쇄되어 나오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는 지양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술한 토대 위에서 향후 중국선교방향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논해 보고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를 위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중국선교의 바람직한 방향과 제언

첫째, 중국교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선교를 행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정한 방침에 따라서가 아니라 중국교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돕도록 해야 한다. 전문 선교단체의 연구나 현지 사역자들의 보고를 경청하고 현재 중국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협력선교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선교는 우리가 한다는 아집을 버리고 대륙교회와 대만이나 홍콩교회 화교교회들과 또는 각 국내의 중국선교단체나 교회들과 어떻게 하면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선교할 것인가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전문선교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은 땅이 넓고 민족이 다양하며 언어 또한 복잡한 민족적 구성을 지니고 있다. 한 교회나 단체가 전체를 포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떤 지역, 민족, 언어권별로 혹은 캠퍼스지역, 의료지역, 해외 중국인 노동자지역, 도시지역, 문서지역 등등의 지역별로 전문화하여 사역해 나간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화해선교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지금 중국내에서는 삼자교회와 사정교회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심각한 실정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중국선교에 나서면서 이 둘의 하나됨을 염두에 두고 균형잡힌 선교에 힘써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선교교회로서의 중국교회 육성을 도와야 한다. 중국은 불교, 회교권 등 다양한 소수민족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단일민족과 언어를 사용하며 협력에 약한 우리보다도 다양한 문화와 언어권에 익숙한 중국인 스스로가 이들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겸손히 돕는 자세가 요청된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한국교회는 중국선교를 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 2가지 모델을 소개해 드리고 싶다.

그 하나는 CCC에서 작년에 시작한 운동인 '養村운동'이다. 이 운동은 마 24:14의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의 말씀과 미국 US센터의 Ralph Winter가 제창한 '미전도 족속 입양운동'에 근거하여 한국교회가 최대의 미전도족속을 입양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한다는 운동이다. 구체적으로는 몇 명 단위의 젊은이들이 북한의 어느 지역을 정하고 모든 정보를 모으며 가능하다면 방문도

하면서 기도하다가 때가 되면 들어가 2년간 헌신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방안이다. 이 운동을 중국선교에 적용해 본다면 어느 한 교회가 중국의 어느 한 지역을 정해 수십 년씩 장기적 계획 아래 기도하며 정보를 모으고 답사하고 투자하여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방안을 세워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전도단으로 알려진 YWAM의 양자입양운동인데 무척 실제적인 방안이다. 여기에는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째 단계가 미전도족속 선정 단계로서, 선교지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중보기도에 의해 대상을 설정하고, 둘째 단계는 선교전략실행 단계로서 교회개혁의 토대형성을 위한 관계맺기와 프로그램 기획단계이며, 셋째 단계는 개척단계로서 현지에서 장기사역자를 파견하는 단계이고, 넷째 단계는 배가의 단계로서 그 진정한 의미는 미전도족속을 전도하여 그들을 제자화하고 훈련하여 그들 세대를 복음화시키며 다른 미전도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지금 얘기한 이 2가지의 모델을 한국교회가 잘 활용하여 앞서의 중국선교의 방향을 따라 선교할 준비를 원대한 안목을 가지고 끈기있게 추진해 간다면 21세기는 중국선교의 세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의 세기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

편집자주: 이 글은 10월 29일 한국기독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중국어문선교회가 개최한 '중국선교회세미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사과의 말씀: 지난 9.10월호 분란에 게재되었던 왕쓰웨이(CRC 연구원의 칼럼) <중국 삼자교회의 이해>는 사전에 강연자의 교명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내용상 강연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될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 점 강연자와 독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중국의 종교정책

정부의 종교문건을 통해 본 최근의 종교정책

번역자: 김성곤, 최경옥(중국어문선교회 회원)

一. 전언

49년 이래로 중국정부가 시행해온 종교정책은 줄곧 국내의 각종 종교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종교는 일종의 의식형태이며, 또한 일종의 정치적 사회적 세력이다. 종교를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지니고 있는 부동의식형태와 대립시켜, 종교를 인민의 사상을 마비하는 파괴성 역량으로 여겨서 투쟁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종교는 심각한 압박과 파괴를 당하게 된다. 종교적인 모임이 인류의 역사적 진전에 따라 저절로 멸망한다고 여기며, 아울러 종교는 일정한 '통일전선'의 가치를 갖추고 있어 그것을 긍정한다고 할 경우, 종교는 저절로 존재하고 혹 발전한다. 49년 이래로 종교는 당의 정책 및 태도 하에서 때로 압박과 파괴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 저절로 존재하거나 발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당과 정부의 종교에 대한 정책은 각 종교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에 있어 종교문제의 처리는 주로 정부의 정책에 의거한다. 그러나 정책은 사회정치 기류 상황에 따라 혹은 관대하거나 혹은 엄하거나 하며, 또한 당과 정부의 문건, 조례 및 상급 지도자의 강화, 지시 등에 근거하여 완화되기도 하고, 엄격해지기도 하였다. 국내정치와 대기후 및 정부의 종교문건은 국내의 종교정책을 결정하고 있으며, 종교정책은 국내 종교의 발전을 결정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본문에서는 정부의 종교문건을 통해서 최근 국내의 종교정책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국내의 종교 형세에 대하여 보다 명석한 이해를 갖고자 하는 것이다. 시간의 범위에 있어서, 본문이 비록 89년 6·4 이후로부터 92년에 이르는 시기로 설정하고 있으나, 중점적인 것은

91년 2월 이후에 두었다. 정부의 문건으로는 주로 91년 2월에 반포된 '中共中央國務院關於進一步做好宗教工作若干問題的通知'(이하 간칭 '육호문건')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그 후에 각 지방에서 제정하고 반포한 지방정부문건과 국가교육위원회의 문건, 지방공안국, 지방종교국 문건등을 분석하였다. 본 글에서는 먼저 89년 6·4이후의 정치대국, 기후, 종교형세 및 종교문건 공표의 필요성에 대하여 탐구해 본다. 또 정부 문건을 분석하고, 최근의 종교정책을 귀납하며, 종교정책의 실천과 영향을 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최근 종교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평론을 제시한다.

二. 국내정치, 종교의 형세 및 종교문건 반포의 필요성

1. 89년 6·4이래의 정치 국면

6·4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중공은 줄곧 '안정단결, 안정제일'을 강조해 왔다. 6·4 일주년이 되는 때에 <인민일보>는 '안정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발표하여 자유화에 타격을 가하고, 침투, 전복, 화평연변을 반대하는 '심각한 타격'으로써 '안정'에 도달하고자 시도하였다.

정치적인 형세로부터 보자면, 6·4사건은 개혁과 영수와 참모들 그리고 관련 인물들을 권력의 핵심으로부터 축출하고, 보수파 인사들이 점차 우위를 점하여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다. 이로부터 보수사상은 '左'경향과 함께 정치상의 주도적인 형세를 이루어 왔다. 금년 이월 동소평의 남순에 이를 때까지, 심지어는 목전의 당14全大가 소집되는 전날 밤까지 당무 계통상의 조직, 의식형태, 선전, 언

근래의 동구와 소련의
거대한 변화, 해체는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파들로 하여금 적대세력에 대한 계급투쟁을 한층
강화하게 하였으며 적대세력의 행동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론과 정부 계통상의 경제, 문화, 학술, 교육, 원로정치 동등 모두가 보수파 인사와 좌경 인물들에 의해 농단되고 점거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이러한 인사들의 조합과 포진 위에서 계급투쟁을 중시하고 의식형태를 강조하는 것은 필연적인 지향이다. 그러므로 근년 이래의 '반자산계급자유화', '반삼투', '반전복', '반화평연변' 및 개혁 개방은 '社'씨에게 물어야 하는지, '資'씨에게 물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곧 국내 정치 상황의 '대기후'를 형성하였으며, 중국의 정국과 인민에 영향을 주었다.

근래의 동구와 소련의 거대한 변화, 해체는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파들로 하여금 적대세력에 대한 계급투쟁을 한층 강화하게 하였으며, 적대세력의 행동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상황의 변화와 긴장은 '대기후'를 형성하였고, 이러한 '대기후'는 각종 국내의 작은 날씨들에 영향을 주었다. 종교는 줄곧 일종의 의식형태와 사회정치세력으로 간주되어 왔으므로 그 항방과 운동에 알 수가 없다.

2. 국내종교의 발전형세

근래 종교, 특히 기독교는 국내에서 신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신도들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국가 부주석 왕진은 작년 일차 内部講話 중에서 역시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당이나 공청단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종교단체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종교열은 다음의 상황들을 통해서 증명된다.

① 당원 신도수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왕진은 하북성 랑방시에서는 90년에 16명의 개종한 당원들이 당을 떠나기를 자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신강의 객심, 화전 등지에서도 반수 이상의 당원들이 종교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당간부들이 경건한 신도들이 되었다. 강서성 남창 지구의 당원으로서 기독교에 입교한 사람들의 숫자는 기독교도 전체수의 0.05%를 점하고 있다. 청해성위조직부에서는 당

원 신도들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몇몇 규정을 제정하였다. 현재 당원 신도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② 중학교, 국민학교 학생들이 날이 갈수록 종교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작년 국가교육위원회 문건에 의하면, 지방 소도시 세 곳을 조사한 결과, 8419 명의 중학교 국민학교 학생들 중에서 871명의 교인이 있어서 전체 학생 수의 19.6%를 차지했다. 학생 신도 중에서 중학생은 26.24%를, 국민학생은 73.76%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절강성교육위원회에서는 91년 11월 11일에 발표한 문건 중에서 천주교, 기독교인들이 중학생, 국민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성경을 읽게 하거나, 종교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더욱이 '소년독경반', '유아창경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산현 태평향의 1599명의 국민학생 중에서 종교활동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180명으로 전체 학생의 11.8%를 점하고 있으며, 개별 마을의 학교의 경우 33.6%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중학생, 국민학생들이 종교를 믿고,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상황은 종교가 흥왕하는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였다.

③ 청년들과 지식층들의 입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별히 6·4 이후에 전국 각지의 청년들과 지식층 중에서 기독교에 귀의한 자들이 대단히 많다. 이러한 증가 상황은 정확히 통계를 낼 방법이 없지만, 국내의 삼자교회, 가정교회로부터 집회에 참가하는 청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북경, 상해, 천진, 광주 등 대도시 및 화동일대에서는 더욱 뚜렷하다. 일부 민간수업자들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④ 종교활동 특히 기독교의 복음 사업은 대단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6·4 이전에는 소위 '자유전도인'이 쭈을 누비며 전도하는 것과 집회소의 건립은 가히 전국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들은 더욱 멀리 신강, 서장 및 변방의 소수민족 지구에까지 나아갔으니, 전도자의 발자취는 강물처럼 흘러 그침이 없었다. 지금의 '자

유전도인'의 정기적, 비정기적인 전도와 양육 사업은 비록 많은 지역에서 제한과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일부본 지역에서는 여전히 활동할 수 있는 '자유'의 폭'이 있다.

⑤ 해외의 중국선교에 대한 진전이 빨라졌다. 80년부터 해외 기독교의 중국선교가 점차 확대되었다. 우선 외국 국적을 가진 인사들과 홍콩, 마카오 신도들이 가장 먼저였고, 그 후에 대만 기독교의 대륙전도사업이 그 뒤를 따라서 흥왕하였다. 해외의 중국선교는 각 지역의 가정교회들로 힘을 얻게 하였으며, 대륙의 기독교를 더욱 발흥하게 하였다. 근래 외국 국적의 인사들은 각종 직업, 교류를 통하여, 대만 기독교인들은 친척방문, 여행들을 통하여 선교사업을 대도시와 연해 일대에서 상당한 활약을 보였으나, 그러나 역시 일정한 혼란과 편차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방향에서 보더라도, 종교활동, 특히 기독교의 활동은 6·4 전후에 전국적인 발전과 흥왕을 이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봉은 전례를 깨고 90년 12월 5일 전국종교공작회의에 참가하여 담화를 발표하였고, 강택민은 91년, 92년 1월에 연속적으로 5대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던 것이다.

3. 정부의 문건 반포의 필요성

중공정권의 성질상 국내에서의 어떠한 활동과 조직도 모두 반드시 당과 정부의 관리체계하에 소속되어야만이 비로소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종교 특히 기독교의 활동과 존재양식은 어느 점에서는 발전과 흥왕으로 인해 '탈관리', '탈예속'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자 당과 정부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지도하려고 계획하게 되었다.

당과 정부의 당국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부 당원들이 자원하여 탈당하고 종교단체에 입교하는 것이나, 혹은 당조직회의에는 참가하지 않고 종교 집회 장소에 참가하는 것이나, 중학생, 국민학생들이 종교를 믿고,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날로 늘어나는 것이나, 청년, 지식층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하여 냉담한 반면 종교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는 것이나, 국내 종교활동이나 조직이 갈수록 제어하기가 어렵게 되고, 해외의 중국에 대한 종교사업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는 것 등은 모두 당국자에게는 위협과 위기가 된다. 그러므로 당과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보

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국내의 보수, '左'경 세력들로 형성된 정치 대기후로 말하자면, 의식형태를 중시하고, 계급 투쟁을 강화하는 상황하에서 각종 적대세력들, 특히 종교에 대하여 '反'의 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안정'을 확보하는 중요한 공작이다. 그러므로 당과 정부는 단호하게 종교문제를 처리함으로써 상황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중국에 있어 정부는 종교적 사무와 종교적 문제에 대하여는 줄곧 문건,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였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원인으로 보자면, 중공 중앙 혹은 국무원에서 문건을 반포하고, 종교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91년 2월 5일 반포한 '6호 문건' 및 잇따라 발표된 각 지방에서 제정된 지방정부의 종교문건은 종교사업을 강력하게 '관리, 감독'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종교사업을 정부의 법률, 법규와 정책하에서 두고 행정 관리와 감독을 실시하여, 정부가 주관하고, 좌우하며, 제어하려는 것이다.

三. 최근의 종교정책

최근의 종교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최근 정부가 비상한 관심을 두는 사항과 정책에 본문의 중점을 두려 한다. 그러므로 오래 반복되어 온 정책이라도 최근에 특히 강화되었거나 중시된 것이 아니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六號文件' 및 그 후의 지방정부의 종교文件을 통해 최근 정부의 對종교작업이 중시하는 중점과 종교정책을 아래와 같이 분석 귀납할 수 있다.

1. 개인 사상범위에 한정된 「종교신앙의 자유」를 거듭 밝히고 있다.

'六號文件' 외의 각종 정부문건에 개인적인 신앙과 불신앙의 자유인 「종교신앙의 자유」를 포괄하고 있다. 운남성 무정현의 부현장은 교역자훈련반에 대한 담화문건에서 「믿지 않을 수 있는 종교적 자유」와 「종교신앙의 자유는 생각한 대로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달리 신강성 喀什, 和田지역의 보고서에서는 일부사람들이 「당의 종교신앙자유정책이 마치 신앙을 독려하고 종교를 지지 발전시키는 듯이 보여 종교신앙의 자유를 종교활동에도 자유가 있는 것으로 오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생각을 「지도사상상의 편차」라고 단정하였다. 이렇게 최근의 급속한 종교확산과 적

극적인 종교선전이 일으킨 개인적 신앙자유의 성격을 거듭 밝히고 있다. 또한 당과 정부는 「종교신앙자유」를 단지 「사상적 단계의 구분」에 두고 있을 뿐이며 종교적 발전을 기꺼워하는 것은 아님을 충분히 밝히고 있다.

2. 종교사업이나 활동은 반드시 헌법, 법률, 법규와 정책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六號文件」 및 각종 종교文件 속에는 사무, 활동이 헌법, 법률, 법규 및 정책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매우 강경하고 굳은 결의가 드러나 있다. 이는 최근의 각종 종교적 사무와 활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어느 정도 사라졌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六號文件」, 「楚雄彝族自治州宗教活動管理暫行規定」(1991년 2월 26일 통과됨, 이하 「彝族規定」으로 생략해 부름), 「甘肅省宗教事務管理暫行規定」(1991. 10. 23 통과됨, 이하 「甘肅規定」으로 생략해 부름) 및 각종 文件에 정책범위 안에서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종교사무 활동이 정부 법규의 강한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더욱이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음을 말한다. 여기서 그 제한성과 예측성이 더 뚜렷이 드러난다.

3. 종교와 교육의 분리원칙을 견지한다.

근년 중국내의 중학교, 국민학교 학생들의 入敎와 종교참여활동이 매우 활발해져 작년 8월 5일에 국가교육위원회는 종교와 교육의 분리원칙을 견지하는 문건을 특별히 발송하였다. 종교활동이 왕성한 지역의 중학, 국민학교 학생들의 입교人數가 매우 많으며 심지어 일부학생은 공산당에 항거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려들지 않았다. 국가교위회에서 文件을 발송한 뒤 각지에서도 실정에 맞는 지방문건을 발표하였으며 섬서성의 톈원진 인민정부는 가장에게 발송한 「告家長書」에서 “재학중인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교회를 참관하거나 방문하는 것도 금지한다.” 또 “신앙이 없거나 종교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은 진학시험에서 같은 조건하에서 우선적으로 합격시킨다. 종교에 참여하거나 기타 미신적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모두 「三好학생」, 「모범반 간부」의 평점을 받을 수 없다.” 절강성교위원도 종교와 교육의 분리 원칙과 어린이와 소년을 입교시키거나 종교활동하게 만드는 것을 엄

격히 제한한다고 文件에서 밝혔다. 국가교위회의 이철영(李鐵映) 주임도 국민학생, 중학생의 입교 및 종교참여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금년 3월 15일 전국민족교육 공작회의의 강연에서 「교육과 종교의 분리 견지」, 「종교를 이용한 교육간섭금지」를 강조했다. 이밖에 「六號文件」, 「彝族規定」, 「甘肅規定」, 「浙江省宗教活動管理規定」(1992. 4. 16 통과, 이하 「浙江規定」으로 생략함), 「河南省宗教活動場所管理辦法」(1991. 8. 21 통과, 이하 「河南辦法」으로 생략함) 모두가 종교와 학교 교육의 분리원칙을 명문규정하였다. 이런 정책은 청소년, 어린이의 종교사역에 큰 영향을 주며, 특히 교육을 직업으로 한 일부 전도자들에게 큰 제한이 된다.

4. 종교사무에 대해 행정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간다.

이 정책은 「六號文件」 및 기타 이어서 지방에 반포되는 지방文件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며 또한 최근 종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정부文件에서 종교사무에 대한 행정관리와 감독이 아래와 같이 강화됨을 발견할 수 있다: ①종교활동장소의 설립, ②종교장소의 등록과 종교활동은 반드시 비준을 받아야 한다. ③종교훈련반 행사, ④종교 교역자의 省, 市, 縣을 벗어나는 활동, ⑤지역의 종교인의 종교활동은 省 이상의 종교단체의 허가를 거친다. ⑥비밀 전도인의 전도와 포교행위를 엄중 제한한다. ⑦불법으로 여는 성경학교나 수도원, 신학교는 법에 따라 제한한다. ⑧규정 위반에 따라 나누어 처리하고 치안처벌 및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비록 이상의 사무가 새로운 결정은 아니지만 최근 정부의 문건에서 자못 중시되고 있다.

또 종교사무에 대해 행정관리와 감독을 행할 때 정부는 「綜合治理」의 방법을 취한다. 「綜合治理」는 흔히 자연재해나 공해, 사회공해 혹은 범죄활동 등 문제의 처리에 쓰인다. 그러므로 종교에 대해 「종합치리」를 행할 때는 먼저 종교를 홍수나 맹수류 같은 재해나 화로 보는 시각이 전제가 된다. 그래서 종교사무 및 활동은 정부의 종합치안의 대상이 되고 「被整」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다.

「六號文件」은 종교작업을 각급당위와 정부의 의사일정항목 속에 들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항목은 각급당위와 정부가 종교사무를 정당하게 대신할 수 있으며 종교사무를 좌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같이 「애국 종교단체」를 유

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종교사무는 수시로 행정 명령을 받아 중단되고 행정관리가 대폭적 제한을 받으며 항상 감독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5. 교회의 독립자극

종교사무원칙을 고수한다. 이 항목은 특히 해외종교단체, 개인적인 종교사무, 활동을 금하고 있다. 최근 해외의 대중국종교활동이 다양화 다경로로 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어느 정도는 장악하고 있다 해도 통제력을 잃는 상황도 적지 않다. 六號文件은 특히 각종 교류와 협력을 빙자한 종교사무를 지적하였으며 또 91년 7월 10일 복건성 장주시 공안국이 기밀로 처리한 「지역외의 종교적대세력의 장주시에 대한 침투 표현 및 대응책」文件 중에 해외의 대중국 종교사무와 활동을 지적하고 아울러 고도의 경각심을 강조하고 있다. 각종 종교문건은 모두 해외신도의 국내종교활동에 대해 「종교침투」란 이름을 씌워 엄격히 배격, 제지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종교사무에서 교회의 독립자극 원칙을 고수하고 해외의 대중국종교활동을 굳게 막을 뿐 아니라 국내종교사무도 종교인의 독립자주적인 처리를 할 수 없게 하여 도리어 반독립, 반자주, 반자생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상 다섯 가지는 최근 정부의 종교문건에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중요하고 강경한 종교정책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써 최근의 종교정책은 행정관리, 감독의 정책과 범위제한의 정책이 중강된 「종합치리」 정책이며 정부정책에 따라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정부는 종교에 대해 「강제적 태도」를 갖고 있으며 수단상으로 는 左向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四. 종교정책의 성과와 영향

최근의 강경 左向적 종교정책은 집행과 성과에 있어서 종교사무와 활동에 얼마간 긴장과 축소를 갖고 왔다. 아래에서 가정교회, 삼자교회 및 해외의 대중국선교를 통해 최근 종교정책의 성과와 영향을 보기로 한다.

1. 가정교회에 대한 영향

가정교회는 보통 등록을 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가정교회지도자는 등록을 하면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등록방침에 대립적 태도를 갖고 있다. 또한 이 때문에 상술한 최근의 종교정책하에서 가정교회의 활동이 제한과 핍박을 받고 심지어 정지되기도 하며 전도인은 체포 구속되기도 한다.

작년 3월, 북경 시내 일부 신도가 가정집회를 할 때 공안원이 침입하여 집회중지를 명령했다. 또 다른 북경 가정교회의 한 老 형제는 3월 중순에서 4월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공안국의 심문을 받고 참회서를 써야 했다. 작년 9월 중순 절강성에 있는 비교적 큰 한 가정교회에서는 세례식을 하던 중 공안원이 습격하여 강제로 전도인을 체포, 구금하였다. 또 광주(廣州) 大馬站교회의 林獻燕은 작년 일 년 간 계속 종교사무처, 공안국 심지어 인민대표 등으로부터 등록을 강요받았다. 아울러 금년 3월 세번이나 종교사무처와 공안원에게 압력을 받았으며 한 종교 사무처 직원은 법이 발동되면 행정관리를 받을 거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작년에 六號文件이 발표된 이래 각지에서 잇달아 지방文件이 발표되었으며 전국 가정교회는 종교사무처와 공안국의 文件 집행과 성과 때문에 교회가 폐쇄되고 전도인이 체포되고 집회가 핍박 속에 정지되고 신도들이 핍박받는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가정교회는 핍박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역 밖의 人士와 접촉하며, 불법활동, 불법집회를 갖고 있다. 때문에 가정교회는 그 발전상 최근의 종교정책의 큰 압박을 받고 위축되어 있다.

2. 三自교회에 대한 영향

정부의 文件이 내려지자 삼자교회의 미친 영향은 비록 가정교회에 대한 경우와는 달랐지만 제한을 받고 예측적 입장이 되어 명령을 따라야 했으므로 그 영향이 깊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먼저 당 정부가 삼자교회에 취한 각종 조처는 삼자교회 및 그 교역자들이 더욱 정부의 정책에 따르도록 만들었고 행동에도 매우 조심해야 했다. 길림성 運江市 灣溝鎮에서 기독교에 대한 차례의 「종합치리」가 있었으며 그 주요방법은 신도 활동에서 간부와 중심인물을 조사하여 그들이 받아야 할 「교육과 처리」를 받게 한 것이다. 아울러 종교정책 학습반을 만들어, 三個拒絕와 외국종교조직이 연결된 「三自愛國領道小組」를 성립시켰다. 하북성 吉集市, 雲南省 무정현 종교국도 각기 종교정책선전과 교역자 훈련반을 실시했고 광둥성 종교국도 작년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광둥성 천주교, 기독교 애국조직 책임자 학습반」을 실시하여 三自의 교역자들이 정치적 각성을 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정책에 따를 수 있게 하였다.

이 밖에 정부사람들은 삼자교회에 대해 서로 다름없이 강경행동을 하였다. 작년 7월초 강소

성에 있는 어느 삼자교회에서는 집회시 8명의 공안원이 갑자기 습격하여 전도인과 신도를 때리고 힘을 과시하였다. 하남성 어느 縣의 종교간부는 교역자가 교회에 「무신론 선전교육자료」를 뿌리게 하고 신도들이 배우게 하였다. 또 어떤 지방의 삼자집회장소는 폐쇄되었다. 이런 상황은 모두 정부가 현행종교정책을 집행할 때 권력지상적이고 즉결주의적인 현상을 나타냄을 잘 보여주고 있다. 丁光訓도 삼자교회가 피관리상태에 놓일 것을 걱정하고 있다. 또 어떤 이는 이처럼 국내에서 정치와 종교관계가 순조롭지 못한 것이 삼자원칙이 잠식당하는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로써 삼자교회가 종속적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 자신의 삼자의 기치도 정부의 정책과 관리의 월권으로 침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해외 對중국선교에 대한 영향

최근 해외의 對중국선교가 흥성하여 중국내 많은 人士들의 깊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의 對중국선교는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서 다양화, 다경로, 다층면의 복음사역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 및 삼자인사들은 이미 일부 경로를 장악하여 많은 사역을 막고 있다.

최근의 종교정책은 해외의 對중국선교가 어쩔 수 없이 위축되고 은밀하게 행해지도록 만들었다. 동북, 동남연해, 신강성 등지의 일부 선교사역은 노출되어 정제되거나 또는 다른 길을 찾고 있다. 특히 복건성 장주시의 공안국은 해외의 선교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있으며 공안당국도 많은 대만신도의 선교활동을 억제하였다.

대륙의 선교사역이 드러나게 되면 더이상 발전하기 어려워진다. 일부 노출된 지역과 신도들은 그들의 직업상 큰 제한을 받는다. 현재 많은 선교사역은 더욱 다경로화되고 은밀해지는 추세이다.

五. 결론 - 최근 종교정책의 문제

이상으로 중국내 최근의 종교정책이 「강제 좌향」적인 성격이자 「제한과 관리」를 특징으로 하는 종교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아래에 최근의 종교정책이 제시하는 몇 가지 문제를 결론으로 삼는다.

1. 六號文件은 「법에 따른 종교사무에 대한 관리」를 말한다.

그러나 무엇에 따른 법일까? 중국에는 아직

종교법이 없다. 종교에 대한 대우나 종교문제의 처리는 정책과 규정에 의거하게 된다. 정책과 규정은 정부문건 및 지도자의 담화로 제정된다. 정부문건과 지도자의 담화는 국내정치에 자주 대변동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국내의 종교사무는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치조류에 따라 제정된다. 이같은 法治아닌 人治의 정책기초가 바로 중국의 종교사무를 사람의 말과 생각에 따라 좌우되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법의 제정은 종교사무 중 가장 중요한 일이다.

2. 이상에서 최근의 종교정책도 여전히 보호나 보장된 종교정책이 아니고 제한되고 관리되는 것임을 알게 된다.

만약 종교를 제한과 관리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종교에 대한 「종합처리」는 필연적인 일이다. 때문에 중국의 종교는 단지 정리되거나 이용되는 대상일 뿐이고 종교자유란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六號文件 및 그 후의 지방文件에는 천편 일률적으로 종교를 제한하여 종교에 일정한 범위를 부여하여 보호, 보장한다는 조목도 그저 범위내에서일 뿐이다. 이로써 당과 정부의 종교정책이 종교신앙의 자유로운 발전을 막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정된 범위 안에서 관리하고 타격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최근의 종교문건 및 종교정책에서 여전히 左向사상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문건이나 공안국문건, 黨委文件은 종교대우문제에 있어서 결박하면 질시하고 억누르고 타격적인 처리를 하며 일부 담화 중에는 단편적이고 졸속하며 단순한 方法을 드러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종교문건 및 종교정책은 안전과 보장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경계하고 대비하게 만들고 있다. (圖)

(《中國與教會》91期 중에서)



一當千의 필봉을 휘두른 문서사역자 張文開



서울대 중국어 성경반 제공

張文開 선생(1871~1931)은 청말, 민초부터 민국 20년까지의 기독교의 筆耕교사였고, 당시 기독교 문서선교의 일인자였으며 더욱이 당시 護教論 방면의 맹장이었다. 그는 청년시절 기독교로 귀의한 후 자신의 작품창작 능력으로 헌신했으며 마침내 일생을 紙筆과 지내며 선교와 護教의 작품을 쓰는 것을 수십 년 동안 계속함으로써 상당히 훌륭한 성과를 얻게 되었다. 일생 동안 저서가 상당히 많았고 그의 책과 논문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서 줄곧 신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기에 충분했다. 護教論도 문장이 매우 뛰어나 일생 동안 전국 각지를 여행해 본 적이 없지만 거리와 횡수에 구애받지 않는 문서전도로써 중국인 중에 기독교 복음을 가장 멀리 전파했다는 美名을 얻게 되었다. 일생 동안 문학과 관계를 맺으면서 산, 중국 기독교 문서선교의 선구자 중 한 명이었으며 謝洪來 선생 이후를 이은 기독교권내에서 도덕, 문장, 명성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후인들이 감복했던 교회선배 중 한 명이었다.

장문개 선생은 別號가 亦鏡이었는데 그의 많은 작품에 亦鏡이란 필명을 즐겨 사용했으며 淸 同治 10년(1871)에 태어났고 광서성 평악현 사람이었다. 평악은 桂江유역에 있으며 桂江은 상류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山水甲天下의 桂林을 지나 山水甲桂林의 陽朔과 더불어 남쪽으로 흘러 평악동지를 지나 梧州에 이르러 광동의 서강으로 유입된다. 平樂은 陽朔로부터 가까우며 산수가 아름다운 곳이다. 문개는 평악 현성에는 약 100여 리 떨어진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울지 않아서 한번은 집안사람들이 무심결에 책을 가지고 그에게 가까이 가자 그가 책을 보고는 바로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의 이름을 文開라고 지었다. 이 일은 아마 그의 일생을 문학과와의 풀 수 없는 인연으로 운명지은 것 같다.

문개의 부친은 농업에 종사했고 일생 동안 글을 모르는 고통을 받아왔으므로 문개를 낳은 후 부친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7살 때 私塾(사설글방)으로 보내어 가르쳤다. 문개는 충명하고 본래 책임기를

일생 동안 문학과 관계를
 맺으면서 산, 중국 기독교 문서선고의
 선구자 중 한 명이었으며 謝洪來 선생 이후를 이은
 기독교권내에서 도덕, 문장, 영성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후인들이 감복했던 교회
 선배 중의 한 명이었다.

좋아하여 私塾에 들어간 이후 물고기가 물을 만난 기쁨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몇 년 이후 經史 八股文 文韻詩을 다 읽고 작품을 쓰는 데도 홀륭했으며 그는 나날이 발전해 갔다. 집안이 가난해서 집안 농사일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문개의 학문과 작품창작 기초는 이미 다져졌고 후일 그의 부단한 노력과 자습으로 학문은 계속 발전했으며 마침내 수업을 받지는 않았지만 학업을 계속했다.

문개의 학문 태도는 보통사람과 상당히 달라서 지식으로 부귀영화를 얻으려는 생각은 거의하지 않았으므로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讀書하고 求知하는 목적이 밝은 이치를 깨달아 이런 활달하고 도량이 큰 앎을 저술하는 것이었다. 이런 그의 학문 태도는 전통문화를 따르며 자기 문화의 우월감을 고집하려는 병폐를 극복하게 했다. 그는 자유롭게 각종 전통문화를 연구하며 속박당하지 않았고,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는 객관적 감상과 열린 마음으로 정진하는 아량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후일 그가 기독교 사상과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장문개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의 自述에 따르면 대략 17세(1887) 때 이웃 마을에 가서 책을 읽곤 했다. 하루는 天成이라는 잡화점에 갔었는데 그 잡화점 주인은 그가 스승으로 삼을 만한 친구였다. 그곳에서 우연히 오래된 책 한 권이 눈에 띄자, 문개는 그

읽어보지 않은 책을 재빨리 취하여 읽는 책 기회를 기다렸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를 틈타 책을 겹옷 소매에 넣고 집으로 와서 읽기 시작했다. 겉에는 「新約聖書」라는 4자가 적혀 있었고, 책 첫 부분을 펴자 예수 집안의 족보가 실려 있었다. 모두가 음역된 외국인명이라 그에게 너무 어려워서 더 읽지 않고 보관해 두었다.

몇 년 후 蒙館敎書의 친구 張繡堂이 책을 빌리러 왔다. 繡堂은 10여 권을 책을 골랐는데 그 중에 신약성서도 있었다. 문개는 이를 보고 개의치 않고 농담을 한 마디 했다. 신약성서라는 보물을 가져가니 열심히 읽어보라고 했다. 繡堂은 그의 말을 곧이 듣고 열심히 읽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책을 돌려주려고 와서는 문개에게 그의 독후감을 이야기 했다. “이 책은 참 이상하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수집안에 태어나 자라면서 도를 전하면서 각종 기적을 행하다가 후에 그를 미워하는 사람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기이한 소설로 만드는데 알맞을 것 같다.”

張繡堂의 한 마디 말은 문개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다시 읽기 시작했다. 여전히 예수의 족보를 보고는 명백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의 호기심이 계속 책을 읽게 만들었다. 예수의 탄생, 行事,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마태복음을 다 읽자 문개의 태도는 호기심에서 흥미로 바뀌었다. 읽고 또 읽어서 거의 암송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읽었으나 풀리지 않는 의혹이 여전히

많았고 그를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당시 기독교는 아직 문개가 사는 곳까지 도를 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약성서에 흥미는 있으나 의혹도 여전히 많은 때, 광주에서 3명의 중국선교사가 와서 마침 문개가 사는 곳에 사는 敎友 陳友生을 방문했다. 陳友生으로부터 그들이 「傳上帝道」(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듣고 그의 풀리지 않는 많은 의혹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陳友生の 집에서 그들을 만났고 그들 중에 譚保德이라는 분은 그를 위해 풀리지 않는 의혹을 풀어주었고 敎義를 논한 많은 소책자를 보내주었다. 이때부터 문개는 무언가를 문득 깨우치고 날마다 그들과 같이 교리를 연구하다가 마침내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정했다. 22세(1891)에 광주로부터 특별히 魯子珍 목사가 와서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기독교인이 된 문개는 먼저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여러 번 아버지로부터 죽어버리라는 소리를 들었다. 한번은 소문을 듣고 화가 나서 陳友生 집까지 문개를 찾아왔으나 다행히도 문개가 友生의 집에 있지 않았다.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문개는 많은 핍박을 받았으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 교리를 더욱 열심히 연구했다. 고향을 떠나 광주에 가서 浸信會 紀好弼 목사 아래에서 공부하며 紀 목사가 주관하는 四季書研經班에 들어갔다. 紀 목사는 박학다재했고 성경지식도 깊어서 문개는 그분 아래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문개가 광주에서 紀 목사로부터 도를 배우게 된 기간이 지나자 고향인 平樂으로 돌아왔다. 이때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가 기독교를 신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가 또 집을 떠나 광주로 가서 도를 배우게 될까 두려워 그를 더욱 심하게 감시했다. 문개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내지 못하고 심한 감시를 받고 있어서 집에서 조용히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집에 머무는 동안 그는 집안 농사일을 돕고 혹은 글방을 열어 신도를 가르쳤고 아이들을 계몽하면서 신앙이 달라서 생기는 아버지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했다.

문개의 주위환경은 이렇게 핍박이 많았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믿은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요동하거나 변하지 않았다. 당시 그는 외국 신도들과 통신왕래하면서 그들로부터 많은 신앙상의 격려를 받았다. 그 밖에 광주에서 가져온 신약성경을 계속 읽으며 신앙상의 건실한 기초를 쌓았다.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그는 인내해 낼 수 있었다. 몇 년 후 문개의 부친이 병으로 죽자, 문개에 있었던 제한이 비로소 풀렸다. 문개가 服喪할 때 교회권내에 譚保德과 같은 사람들이 「中國郵報」라는 잡지를 조간으로 발간하였는데, 廖卓庵을 정중히 초빙하여 주필로 맞아 들였다. 卓庵은 문개와는 오랜 친구여서 이전부터 문개가 글을 잘 쓰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문개를 신문사에 천거하고 그를 초빙해 기자직을 맡기기로 했다. 신문사에 승인을 얻은 후 편지를 써 문개를 초빙했다. 문개는 작품창작을 그의 지향하는 소임으로 여겨 일을 같이 하기로 기꺼이 수락했다. 집안일을 대강 처리한 후 평약을 떠나 홍콩으로 가서 정식으로 순보의 기자가 되었다. 이 직책은 문개가 일생 동안 문서사역에 종사하여 글을 쓰게 되는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개는 순보 기자직을 맡은 지 반 년 정도 지나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 원인은 홍콩 식민지의 색채가 너무 농후하고 중서 민족간의 불평등 현상이 그가 감당하지 못할 압력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비록 순보 기자직의 대우가 남달랐고 홍콩의 물질적 조건이 좋았지만 그는 오히려 심령의 평안함을 얻고 싶어 했다. 고향으로 온 문개는 평상시에 농사일을 했고 한가할 때 마을 아이들을 계몽시켰다. 그가 이런 생활을 한 지 수년 후, 이곳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동안에도 그는 기독교의 바른 정신을 잃지 않고 정의를 좇아 행동했다. 무지한 사람들의 재판을 위해 힘썼는데, 2명의 卓姓 사람을 억울한 재판으로 극형에 처해질 것을 구해 주었다. 이 억울한 재판 때문에 문개의 희생이 너무나 컸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 현관은 그를 교활하고 포악한 악덕 변호사로 오인해 그의 일 처리를 방해했고 병사들을 시켜 그를

심하게 때렸다. 문개는 뼈가 보이도록 맞고 심한 벌을 받았지만, 그로 인하여 해박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떳떳하게 재판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원고와 피고 그리고 증인들을 대질 신문시켜 마침내 진상을 밝혀냈다. 두卓姓의 무죄한 사람은 안전하게 풀려났고, 문개의 이런 정의로운 행동과 자기를 희생하며 극형의 고통을 감내한 행동은 마을 사람들과부터 커다란 칭찬을 받았다. 더욱 돋보였던 점은 당시 사회에도 분명히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조약의 보호를 세력삼아 공공연히 소송에 간섭하고 지방관들이 위세에 눌려 정직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번번히 편파적이게 했다. 이러한 행동은 지방관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으켜 중국기독교도의 신분을 일종의 특별한 신분인「敎民」으로 남게 하였다. 문개는 불의한 재판에 자기가 행한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을 교민으로 여기는 오류를 바로잡았다. 그는 불합리한 형벌을 받을지언정 사기꾼 관원과는 손잡지 않았다. 이러한 진실한 기독교의 정신은 자연히 사람들에게 널리 칭찬을 받았고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크게 변화 시켰다. 그는 그의 신앙으로 아름다운 증거를 보였던 것이다.

이후 문개는 신앙적으로 더욱 경건해졌으며 어머니와 가족들을 기독교로 귀의하게 한 것 이외에, 집에서 사람글방을 열어 공부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으며 그 밖에 기독교 성경지식을 학생들에게 소개하여 기독교로 귀의하게 만들었으며, 고향 평양의 교회에서 일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6년이 흘렀다. 광서 31년(1905) 문개는 학생을 데리고 광주에 가서 공부하며 기독교 신학교육을 받았다. 광주 거리에서 우연히 옛날 홍콩에서 중국순보를 같이 만들었던廖卓庵 선생을 만났다. 그 때卓庵은 이미 일본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와 침신회의 기관지인「眞光」신문사에서 주필을 맡고 있었다. 자신을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자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卓庵이 문개의 형편을 알고 나자 그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청했다. 기독교 문서사역은 문개가 좋아하고 특기가 있었고, 진광보의 성질과 중국순보의 성질이 서로 달랐을 뿐

만 아니라 편집방침이 문개의 생각과 자못 일치한 바가 있었다. 깊이 생각한 후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고향에 돌아가 글방을 정리한 후 다시 광주로 가서 진광보 제작에 참여했다.

진광보는 광서 28년(1902)美南침신회에서 파견한 선교사인湛羅弼 목사(R. E. Chamber)로 인해 광주에서 창간됐다.湛羅弼 목사는 침신회의 중국에서의 문서사역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도 글을 쓰며 편집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연초에美華印書局을 만들고 후에美華浸會書局으로 발전시켰는데廣東新會李會珍 선생에게 인쇄일을 부탁했고陳萬庭 선생에게 편집업무를 맡겼다. 소책자「說經叢書」및「土白聖經」「讚美詩」등을 비롯한 많은 교회서적을 출판했다. 그 이후 업무가 나날이 늘어나 결국湛羅弼 목사는 진광보를 창간하였다. 처음 이름은진광월간이었는데 그 후에 진광보로 이름을 바꾸었다. 민국 6년(1917)에는 또 진광잡지로 이름이 바뀌었다. 장문개는 광서 31년 1905년부터 이 일에 참여한 이후 몇 번 잠시 동안 자리를 비운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25년 동안 진광잡지와 함께했다. 동료들 중에서 복무기간이 가장 오랜 사람 중 한 명이었으며 그의 일생의 업적은 진광잡지를 편집하는 일에 있었다. 그 기간에 그는 최초로 진광잡지에 백만 자가 넘는 각종 작품을 썼는데 가히 그의 생명을 완전히 기독교 문서사역에 바쳤다고 말할 수 있다.

張文開先生傳을 쓴歐陽佐羊羽 목사는 그의 진광보 진광잡지 편집의 상황을 다음과 같은 한 마디 말로 표현한 적이 있다

문개 선생은 매일 거의 15~16시간을 일했다. 일 년 사계절 삼복더위나 휴일은 물론 바람이 불고 눈이 오는 날에도 그는 항상 3~4시에 일어나서 한 자루의 붓, 2병의 먹물, 한 개의 가위, 한 병의 미음을 가지고 종일 자리를 뜨지 않고 일했다. 손님을 만나거나, 옷을 입거나, 밥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에 집필, 편집, 원고보내기, 신문읽기, 편지쓰기 등의 작업에 몰두했다. 그는眞光를 매번 주필했는데 그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심혈을 쏟

아 부은 그의 생명력이 드러나 있다.

장문개 선생이 종사했던 기독교 문서사역은 2가지 종류로 나누어 진다. 한 가지는 美華浸會書局의 초대를 받아 기독교의 진리를 명백히 주장한 서적들이고 다른 한 가지는 진광잡지를 편집하면서 당시 반기독교인사들이 기독교를 공격한 각종 글에 대해서 기독교를 옹호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입장에 서서 논박한 장문의 글들이다. 이 두 가지 종류의 글들은 발간되자마자 널리 독자에게 읽혀졌으며 독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 張文開가 美華書局의 초대를 받아 기독교 진리를 밝히 주장한 각종 서적들은 20여 종이 넘는다. 책 수는 비록 많지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제 이 분류를 밝혀 설명하겠다.

1. 중국인이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기독교를 배척한 데 따른 의문을 풀기 위한 서적들. 國教說解剖, 去荊鋤, 大光破暗集, 耶儒辯, 耶墨辯, 破祭先執, 祭先源流考, 清明掃墓考, 誣教雪, 王充問孔丘, 與老學究語 등 모두 11종류.

2. 중국인이 도교와 불교를 믿고 기독교를 배척한 데 따른 의문을 풀기 위한 서적들. 太上老君, 觀世音, 道釋關係, 道仇釋兩大 등 모두 4가지 종류.

3. 중국인이 새로운 지식을 주장하고 기독교를 배척하는 데 따른 의혹을 풀기 위한 서적들 與江精衡論道, 與陳獨秀沈玄廬辯道.

장문개가 대광보와 진광잡지를 편집할 때, 당시 반기독교인사가 기독교를 공격한 글에 대해 기독교를 옹호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입장에 의연히 서서, 장편의 글로 논박한 글의 수를 110여 편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그 수는 많지만 주제는 여전히 「孔教不可爲國教」(유교는 국교가 되서는 안된다)와 「基督敎并非無益於中國」(기독교는 중국에 결코 무익하지 않다) 등 2가지에 있었다. 이 때를 전후해서 지은 간단한 저술들은 이 2가지 문제를 설명하는 辯論文들이다. 民國 6년(1917), 홍콩에서는 國內孔敎會의 뜻에 호응해서 孔敎會 조직하고 孔敎를 國敎로 삼기 위해서 자금을 모아 國是報라는 기관보를 발간했다. 초기 발행했던 기관보에 실린 宣言에는 孔敎를

찬양하고 기독교를 반박했다. 이런 행동은 홍콩에 있는 기독교인사들의 불만을 일으켰다. 이 때 장문개는 마침 홍콩에서 대광보의 주필을 맡고 있었고 문개의 노련한 文筆은 기독교인에게 칭찬을 듣고 있던 터였다. 이에 문개에게 國時報가 반기독교적이라는 점을, 진리를 수호하고 기독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비판하여 써주도록 청했다. 문개는 도의상 거절하지 못하여 수락하고, 그가 주필로 있는 대광보를 논박의 장으로 삼고, 國是報와 함께 격렬하고 훌륭한 筆戰을 벌였다. 문개는 혼자서 상대방인 「菱花」, 「餐霞」, 「滄父」라는 필명을 가진 3명의 작가와 대결하였다. 쌍방은 서로 주거리 받거리 30여 일 동안 筆戰을 벌였다. 문개 혼자 3명의 작가와 논전으로 대치하는 형국이었는데 그 중 멀리 광주에서 온 「滄父」는 문개의 호적수였다. 승패는 곧 결정났다.

후일 美華浸會書局에서는 쌍방의 필전을 벌인 논문을 모아 「大光破暗集」이란 책으로 발간했다. 매우 잘 팔려서 문개의 명성은 더욱 멀리 퍼졌고 기독교권내에서 「鐵肩擔道義, 辣手著文章」(철 어깨에는 도의를 짊어지고 매운 손으로는 문장을 짓는다.)이라는 명예를 얻게 되었다.

민국 7년(1918) 美華浸會書局 편집부가 汕頭로 이전했다. 이 때에도 문개는 침회 서국 산하, 진광보의 주필을 맡고 있어서 일부러 홍콩에서 汕頭로 이주해 살았다. 그 다음해(1919) 汕頭에서 장로회가 설립한 교회학교인 華英學敎에서 공자의 가르침은 숭배하는 풍조가 폭발적으로 조성되었다. 학교측은 신앙입장에서 반대하였으나, 이런 일이 汕頭, 潮洲지역에 퍼져서 지방인사들의 장로회와 華英當局에 대한 불만이 초래되었다. 신문에 실린 공격적인 글들은, 공자가르침을 숭배하는 교내 학생들의 위세를 한층 더 고조시켰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풍조가 만연했다. 문개는 이런 풍조의 경과를 분명히 밝히고 이런 풍조의 발생을 가슴아파했다. 이에 이런 난감한 일에 선뜻 나서서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힘써 쟁변했다. 그는 그가 편집한 대광보를, 특별히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풍조에 대한 토론을 실은 특집호

로 출판했다. 마침내 이런 풍조는 잠잠해졌고 후일 미화침회서국에서는 쌍방의 글을 모아서 「華英拜孔風潮記」라는 책으로 발간했다. 이 책은 중국청년 사이에 유행하여 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민국 11년(1922) 북경에서 처음으로 제 11회 세계기독교학생동맹대회가 열려 30여 개국 대표들이 모였다. 그 대회는 평범한 종교성 집회에 지나지 않고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국내 비기독교학생들은 이 대회를 반대하여 이 대회가 정식으로 개최되기 전에 비기독교학생동맹을 조직하여 비기독교학생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기독교가 개최하는 세계 기독교학생 동맹대회에 반대하며 기독교를 반박했다.

비기독교 학생공동 선언에서는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기독교는 자본주의의 선봉이라고 반박하고, 이번 세계 기독교 학생 동맹대회가 자본주의 지배경제회의이며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종교 대동맹이 출현하여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이 비록 종교의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는 했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비기독교가 주가 되었고 기독교청년회를 질책하는 것이었다. 공격적인 立論은 새로운 지식에서부터 유래한 것으로, 기독교가 반과학적이며 못사람들의 사상을 구속하고 중국청년들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두 차례의 선언은 전국학생의 호응을 받아서 편지와 전보가 잇달았다. 갑자기 전국에는 기독교를 질시하는 풍조가 가득차기 시작했다.

이 때 기독교권내에는 이런 난감한 일에 선뜻 나서 진리를 옹호하고 기독교를 옹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오직 장문개만이 진광잡지를 논단의 장으로 삼고, 때마다 비평의 글을 실어 논박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몇 편 있는데 「糾正非基督教學生同盟的言論之謬誤」, 「批評非基督教學生同盟宣言」, 「批評非基督教學生同盟通電」, 비평 「赤光的基督教與世界改造」, 비평 「汪精衛的力斥耶教三大謬」, 「駁汪精衛國民教育之危機論」, 「駁汪精衛的宗教毒民論」 등이 그것들이다. 이 모든 작품은 상

당히 많이 읽혔다. 후에 美華浸會書局은 쌍방의 글을 모아서 민국 16년(1927)에 「批評非基督教言論彙刊」이란 책으로 발간했다. 이 책은 장문개의 명성을 각지에 더욱 멀리 떨치게 하였다.

문개의 저술, 기독교옹호, 진리수호의 내용을 적은 글들은 당시 교회권내 몇 명의 동역작가들의 평론을 종합한 것으로 모두 그의 문장의 유창하고 간결함과 깨끗함, 왕성한 기세의 필봉의 예리함에 그 기개를 꺾을 만한 상대가 없었다. 책과 논문 중에는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열의가 가득차 있어, 문개를 중국교회 작가들 중 얻기 어려운 인재라고 공인했다. 민국 20년(1931) 봄 문개는 여전히 진광잡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足疾이 걸려 매우 고통이 심했다. 많은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자 광주로 휴양하려고 돌아갔다. 그해 연말 12월 9일, 집안사람들이 침상에 모여 찬송가를 부르는 중에 향년 60세로 평안히 세상을 떠나므로 그의 일생을 종결지었다. 기독교 문서사역상에 그가 바친 공헌은 장차 영원히 후인들의 회고하는 바가 될 것이다. 그는 진실로 기독교의 진리를 중국 각지에 전하고, 또 가장 널리까지 전한 비범한 기독교 筆兵이었다. ㊟

(『中國基督教人物小傳 上卷』 중에서)



생명의 부활

麒麟王에서 基督教까지

董福

번역자 : 양승훈 (중국어문선교회 번역위원)

어려서부터 麒麟王을 믿다.

내 이름은 동복이고 삼대째 불교를 믿어 오고 있다. 마을에 사찰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는 진흙으로 빚은 기린보살이 놓여져 있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아주 독실히 기린보살을 믿었고 나도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보살을 믿는 자가 되어버렸다.

사십이 되던 해 기린왕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찰을 증축하고 보살을 치장하는 일을 토론하게 됐다. 이 때문에 많은 준비작업과 돈을 소비하게 되었고 나 역시 이일로 열심히였다. 공사를 다 끝내고 우리는 날을 정하여 기린왕보살을 앉히게 되었다. 이 때가 되어 누군가가 글을 써서 보살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여줬는데, 뜻하지도 않게 그가 쓴 글은 기린왕보살이 나를 불공대표자로 선택을 했고, 보살의 효력을 위하여 모든 이를 대신하여 섬기는 일을 하는 불공자가 된 것이다. 본래 나로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지 않았으나 내가 보살에 대한 충성과 경건성으로 해서 보살을 섬기는, 나시 말해서 마귀의 노예가 되는 이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그 후부터 매년 중요절기만 되면 혼자서 사찰안을 쓸고 닦고 책상과 의자를 정돈하고 기린왕의 얼굴과 손을 닦는 일 등을 했다. 따라서 사람들

이 사찰에 들어와 보살에게 공을 들일 때면 항상 나를 통해야만 했고, 또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모든 종류의 불공을 올린 것이다.

괴질이 온몸에 퍼지다.

비록 내가 보살에 것처럼 충성되어 경건하게 정성을 쏟았으나, 2년 뒤인 내 나이 사십이 되던 해에 오히려 병을 앓게 되었다. 앓은 병도 이상하게도 온몸이 쑤시는 게 정말이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고, 더 이상한 것은 도대체 어느 부분이 아픈지를 꼬집어 얘기할 수도 없는 괴질이였다. 마치 온몸이 무엇인가로 묶여 있어서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이러므로 해서 심신이 피로하고, 누워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항상 불편해서 오랜 시간 밤을 새다시피 하여 잠을 이룰 수도 없었다. 많은 漢醫나 洋醫의 진찰도 받았지만 그들 모두가 병명을 밝혀내질 못했고, 따라서 병에 맞는 약을 투여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무조건 대충 한약이나 양약을 먹어보기도 하고 주사와 침도 맞아 왔지만 결국 효과가 없었다.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알려주기를 집 근처 英落 꼭대기에 있는 보살이 아주 영험하다 하여 즉시 향초와 불공할 물건을 들고 그곳으로 가서 빌면서 며칠을 그곳에서 묵었다. 향을 피우며 애원하며

절을 하루에 서너 차례 했으나 병세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를 믿는 친척들이 문안을 와서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었다. “그대의 병이 양의나 중의 모두 병명을 알아내지 못하고 많은 악과 주사를 먹고 맞았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으니 분명 마귀가 들린 것이네. 만약에 정말로 마귀가 들린 것이라면 의사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니 오직 한 길 주 예수를 믿어야만이 나을 수가 있네. 어서 빨리 주님을 영접하게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반감이 생겼고 또한 강경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요. 나는 보살의 불공인이며 불공자이니 온 마을이 보살을 모시는 자는 모두 나를 거쳐서 불공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단 말이요. 게다가 내가 모시는 기린왕이 분명 나를 치료해 줍니다.” 나는 더욱더 정성들여 기린왕에게 간구하려고 아예 4개월 동안 절간으로 옮겨가 살았다. 그래서인지 병이 점점 호전되었고 고마운 마음에 보살에게 더욱더 정성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병이 다시 발작하다

8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바로

50세가 되던 1991년이였다. 그해 5월 예전의 괴질이 다시 발작되었고, 증상도 그 당시의 상황과 꼭 같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온몸을 쭈시는 아픔으로 누울 수 없고 팔다리가 마비되면서 쥐가 올라 숨조차 내쉬기 어려웠다. 정말이지 그 아픔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었다. 결국 도립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의사는 고혈압으로 진단을 내렸고 또한 수축혈압이 200을 넘어선다고 했다. 또한 심장이 비정상이라 심장박동이 불규칙적으로 뛰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는 나에게 가장 좋다는 혈압 낮추는 약을 주었고 2주 동안 이 약을 먹었으나 혈압을 낮추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했다.

의사의 말로도 이렇게 심한 고혈압은 처음이고 또한 자기가 제조한 약으로도 혈압을 낮추지 못하는 경우는 자기도 처음 본다고 했다. 이런 상황하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한의원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漢醫의 의견으로는 3년 이상 치료를 해야만이 얼마 동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병원에 입원을 했으나 입원비가 너무 비싸고 병도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퇴원하기로 결정했다. 집에서 치료하는 동안 병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그 고통의 나날이 하루가 천 년 같이 길고 길어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다. 낮에는 밤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고, 다시 밤이 되면 날이 빨리 밝기를 바랐다. 나는 다시 기린왕에 간구했고 더불어 다시 절에 들어가 살면서 소원을 빌었다. 그러나 보살이 향로를 갖고 집으로 돌아가서 향을 사르면서 공을 드리자고 하여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내 병이 날로 심해지기만 했다. 어려서부터 기린왕을 믿어 왔고, 기린왕이 특

별히 나를 봉공대표로 뽑은 후로, 내가 온 정성과 있는 힘을 다해서 그를 모셔왔는데 어째서 기린왕은 나 하나 정도도 치료를 못하는 것인가?

당시 보살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만 하면 매번 가서 불공을 드렸다. 이런 보살들이 모두 나 하나 정도 치료를 못한다 말인가?

생각할수록 머리가 혼잡했고 두려움이 일기 시작했다. 의사도 치료를 못한다고 하고, 보살도 나를 구제할 길이 없었다. 끝장이다. 조그만 희망도 없다. 죽음은 이미 정해져 있다. 슬픔의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

집사람도 이러한 나의 고통을 보다 못해 친절으로 급히 달려가 그곳 보살에게 빌기도 하고 점도 쳐 봤지만 하는 말이 모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집사람은 구할 수 있다는 한가닥 희망을 안고 무당을 찾았으나 그 무당은 생각지도 못한 더욱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다. 다름이 아니라 나의 운명은 이제 다했다는 것이다. 50세가, 내가 저승처녀와 결혼할 시기라는 것이다. 저승처녀라함은 마귀의 시녀로서 내가 그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너무나 겁이 났다. 나는 죽을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처자와 영별을 해야 한단 말인가? 두렵다. 겁이 난다. 죽음이 살아 있는 내 집사람과 자식과의 이별을 만 들고 이로 하여 찢어지는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하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린다. 내가 그런 극한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를 믿는 많은 친척분들이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셨고 주 예수께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다. 어떤 친척분은 내가 주 예수를 믿

기 이전에 예수쟁이를 핍박했던 적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간접적으로, 주로 간증애기를 들려주면서 예수께 인도를 해줬다. 어떤 사람이 증명을 앎게 되어 여러 곳을 다니며 치료를 하면서 있는 돈 다 쓰고 남에게 빌려 쓰게 됐다. 절간에 가서 공을 들여 봤으나 병의 차도는 보이지 않고 도리어 부모처자간에 싸움이 자주 일어나 그는 더욱 고통과 번뇌에 싸이게 됐다. 뒤에 예수를 믿게 되면서 병이 나았고 부모와 처자도 예수를 영접하면서 온 집안이 화목해져가면서 남이 부러워하는 행복에 넘치는 가정으로 변하였다. 그의 많은 진지한 간증을 들으면서 성령이 점차 내 마음에 빛을 내리셨다. 나는 이제 과거에 저질렀던 일에 반성을 하기 시작했고, 이전에 믿고 간구해 왔던 각 보살이나 3대에 걸쳐 믿었던 기린왕보살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나를 막바지 굴복으로 몰아 넣었다고 생각됐다. 이제 이 보살들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으며 또한 이 길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진짜 죽음의 길로 들어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유일한 나의 길이요, 희망인 것이었다. 그러나 마음 속에는 모순과 갈등이 밀려왔다. 정말로 나아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정말이지 면목이 없었다. 예전 그렇게나 예수쟁이들을 못살게 굴었던만 이제와서 그런 내가 교회로 나아가 그때의 사람들과 대면을 하려니 참으로 곤란한 일이었다. 어떻게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애가를 할 것인가? 더구나 주위사람들 모두가 과거 내가 불공대표인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가 주를 믿는다 할 것인가?

그들을 만나면 또 뭐라 얘기할

것인가? 또 그들이 과연 나를 받아줄 것인가? 그러나 이런 갈등 속에서도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신념은 주 예수를 믿는 길만이 나의 희망이라는 것이었다.

연일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이런 와중에 감사하게도 주께서는 나에게 기묘한 계시를 내려주셨다. 어느 날 저녁 꿈을 꾸게 되었다. 내가 第十생산반으로 가서 판자를 살 때 문득 마음 속에 「十字」가 생각났다. 「十字」 분명 가로 한 가닥에 세로 한 가닥이다. 분명 십자가였다. 십자가가 주님의 기호가 아니던가 이 분명 내가 주를 믿어야 한다는 계시였다. 나는 즉시 이 꿈을 아내에게 알렸는데, 第十생산반에 가서 판자를 사야 된다고 했다. 이것은 내가 십자가의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계시로서 이래야만이 내가 나의 길로 갈 수 있고 병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의논 후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회로 가서 책임자를 만날 생각을 하니 선뜻 내키지가 않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친척분에게 교회책임자를 찾아가 내가 예수를 믿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다. 돌아와 하는 말이 책임자가 말하기를 당연히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했고 오히려 대단히 환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삼 신중을 기한 후에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었다. 말인즉은 오늘 믿는다 해 놓고 병이 나오면 믿지 않고 다시 미신을 따를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말로 인해 나는 참된 생각을 하게 됐다. 보살은 거짓 신이며 좋은 것이 못된다. 그 보살에게 있는 성성을 다 바쳤으나 도리어 나를 축

음의 길로 끌어들었으니 더이상 그 보살을 따를 수 없다. 오늘 나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고 이 결심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고 결심한 후 나는 교회 형제자매에게 우리집으로 와서 내가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청했다.

1991년 11월 21일 정오, 교회책임자 임 형제와 신망 형제 그리고 몇몇 자매가 우리집으로 와 모든 부적물을 깨끗이 치워버리고 벽에다가 성경문구를 붙여 놓았다. 형제들은 나를 위해 귀신을 쫓는 기도를 했고 또 내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내 주로 영접하도록 따라 기도하게 했다. 또한 찬송가 「예수이름으로 예수이름으로 승리를 얻으리...」를 불렀다.

기적이 나타났다. 이제껏 온몸을 찌르는 고통으로 몸 둘 바를 모르며 밤을 새우던 내가 이날 저녁, 고통이 사라지면서 몸이 가벼운 게 온 밤을 편히 잘 수 있어서 꿈만 같았다. 일 주일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심장박동도 제대로 뛰어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었다. 나는 당장에 집사란더러 같이 교회로 가서 설교를 듣자고 청했다. 교회에 들어서자 형제자매들이 다정스러이 나를 둘러서 이것저것 물으면서 관심을 가져주었다. 참으로 이로써 나는 예수의 사랑과 비할 바 없는 파스함과 위안을 받게 된 것이다.

끝까지 예수를 따르리

원래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예수를 믿었으나 집회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죄를 지었으며 또한 커나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마귀 노예가 되어 주를 믿는 자들을 탄압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죄대로 나를 대하지 않으시고 또한 죄의 대가를 원치 않으셨다. 도리어 나를 은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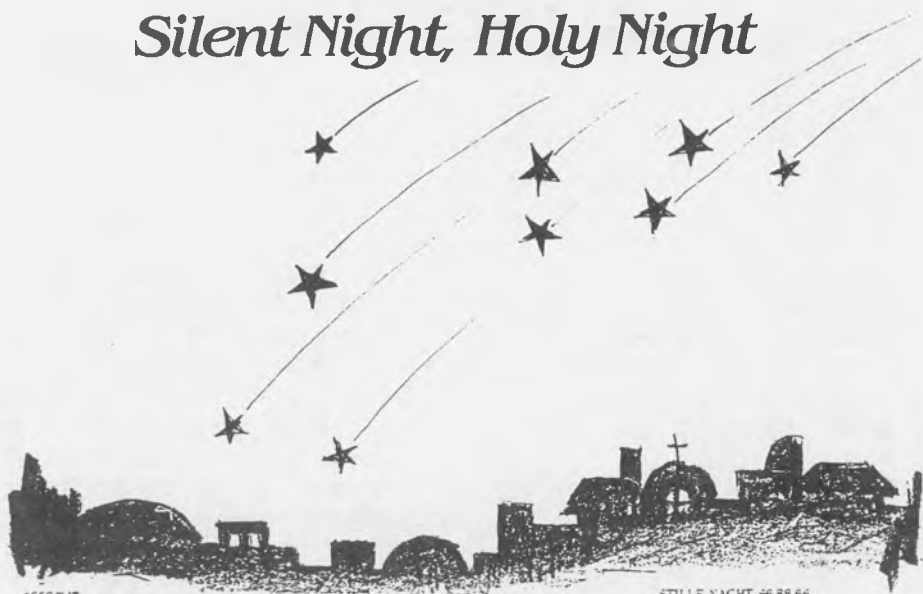
이 돌봐주시고 또한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해주시어 사탄의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셨다.

주께서는 인내로써 완고한 이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막다른 절망의 길에서 주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에 주께서는 은혜로써 나에게 임하셨다. 나를 병마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지옥의 불길에서 건져내시어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평화로운 천국집에 머무를 수 있게 해 주셨다. 사랑의 주님, 당신께서는 나의 죄를 대속하시어 십자가에 피를 뿌리셨으니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하리요. 제가 당신께 보답할 것이 없으나 다만 이 몸이 증거가 되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리이다. 당신이 나에게 행한 일들을 전파하고 당신이 행한 놀라운 능력의 치료를 전파하고 나를 죄악과 사망에 건져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심을 전파하겠습니다. 전에 나와 같이 미신을 믿는 자들에게 이 몸으로 증거 삼아 주님의 은혜와 끝없는 사랑을 알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주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이다. 주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제 집사람, 자녀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여 집안이 복을 받는 가정 이 되었습니다. 주여 영원히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오리다. ☉

(中國與教會 91期 中에서)

平安夜聖善夜

Silent Night, Holy Night



1958年譜
JOSEPH MOHR 1792-1848

STILLE NACHT 66 88 66
FRANZ GRUBER 1781-1863

5. 6. 5. 3. | 5. 6. 5. 3. | 2. 2. 7. | 1. 1. 5. | 6. 6. 1. 7. 6. | 5. 6. 5. 3.

1. 平 安 夜! 聖 善 夜! 人 寂 靜, 夜 無 聲; 虔 敬 慈 母 撫 守 聖 嬰,
2. 平 安 夜! 聖 善 夜! 有 天 使 來 空 中; 光 明 顯 現, 牧 人 驚 動;
3. 平 安 夜! 聖 善 夜! 真 神 子 慈 愛 光 顯 於 聖 顏, 何 等 輝 煌!

6. 6. 1. 7. 6. | 5. 6. 5. 3. | 2. 2. 4. 2. 7. | 1. 3. | 1. 5. 3. 5. 4. 2. | 1. 1.

榮 光 環 照 佳 美 聖 容, 臥 於 天 賜 安 寧, 臥 於 天 賜 安 寧。
“哈 利 路 亞!” 天 軍 歌 頌; 救 主 今 夜 降 生! 救 主 今 夜 降 生!
救 恩 黎 明 照 臨 世 上; 救 主 降 生 此 方! 救 主 降 生 此 方!

우리말 가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중국의 가족과 계승

번역자:

김성곤(중국어문선교회 번역위원)

중국의 각지역의 가족의 결합양식은 다양해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형태의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아주 신식의 것도 있고, 이 둘 사이의 것들도 있다. 여기서 고찰하려고 하는 범위는 단지 華北지방으로 한정하였음을 먼저 밝혀둔다.

一. 가족의 크기

먼저 말하려 하는 것은 가족 구조의 크기와 관련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중국의 가족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대가족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균 오륙 명의 식구로 이루어진 가정들이 대다수를 점한다. 山西省 臨汾 부근의 농촌의 경우 호당 평균 식구수는 5.75인이었다. 河北省 定縣의 호당 평균 식구수는 5.80인이었다. 이외에 기타 일곱 省 열여섯 곳에서 행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호당 평균 식구수는 5.65인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이처럼 소가정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이 점에 관하여는 학자들은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日人 牧野巽 박사는 어떤 기록에 의거하여 이천년 전의 漢代도 지금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당시의 일반적인 가정의 평균 식구수도 약 5인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중국의 가족 식구는 비록 간혹 증가하고 감소되고 했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서로 비슷한 숫자였으며 근대에 와서 비로소 감소된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인 加藤常賢 박사는 다른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중국은 고대에는 가족적 성격의 혈족제였다. 후에 형제가 종신토록 동거하면서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

하는 제도로 발전되었다. 후에는 또 부친이 죽은 후에 형제가 따로 거하면서 재산도 분리하는 형태로 변하였으며, 이 세 종류의 가족 제도를 경과한 후에 마침내 또 부친이 살아 있을 때 형제가 分家하는 단일 가족제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加藤常賢 박사는 중국은 고대에는 가족제도가 비교적 컸으나 후대로 내려갈수록 점점 작게 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清水盛光氏는 근대의 통계자료에 의거하여 가족집단의 크기는 빈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바, 고대의 일반 서민의 가족형태는 아주 작은 반면 당시의 상층계급의 가족은 아주 많았으며, 후대로 갈수록 점점 감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설명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정론이 없다. 다만 모 전문가의 논문에 의거해보면, 山東省 益都縣의 40여 촌락의 경우 최근 이십 년 동안 가구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그 주된 원인은 分家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山西省 臨汾 부근의 농촌의 경우 이전에는 오륙십 가구 였으나 지금은 88가구로 증가 되었고, 河北省 冀縣 北管馮촌락의 경우 삼십 년 전부터 分家가 시작되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山西省 虞鄉 부근의 농촌은 民國 이후 부친이 살아 계실 동안에 형제들이 分家하는 상황이 증가되기 시작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어떤 대가족은 소유하고 있는 능지가 적어서 分家를 할 경우, 원래부터 곤궁하던 것이 더욱 곤궁해질 것이기에 부득불 대가족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대가족은 고대의 대가족제의 잔존 형태는 아니며, 완전히 토지의 부족으로부터 산생된 별개의 형태이다.

二. 家産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족'들은 한 가장 아래에서 공동의 주택, 재산 그리고 혈연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자주 '同居, 同籍, 同財, 同爨' 등의 말로 가족이란 말의 대응어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同爨'이란 말은 공동으로 취사를 한다는 뜻이며, 공동으로 취사를 하게 되면 '同居'하는 것이요, '同居'하게 되면 자연 재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同財'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부두막을 같이하지 않는 사람은 사는 곳도 다르게 되고, 재산도 공유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산업을 분할하는 상황을 '分家, 分異, 分析, 分財, 分居' 등으로 부르며, 어떤 지방에서는 '分火, 分烟, 析烟'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중국에 있어 '火'는 일가의 중심이 된다. 각 가정의 주방 안에는 모두 조왕신(부두막신)의 신상이 붙어 있고 신상 아래에는 '一家之主'라는 글자가 써 있다. 민간신앙에 조왕신은 매년 음력 십이월 이십삼일에 하늘로 올라가서는 그 집안에서 일년 동안 발생하였던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모두 옥황상제에게 고한 뒤, 다시 그해 삼십일 저녁에 그 집안의 길흉화복을 가지고서 돌아온다는 것이다. 南京 일대에서는 조왕신을 '福神'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신앙에 의거하여 分家를 '分灶' 혹은 '分火'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다.

중국인 가족의 '同財觀念'은 도대체 어떤 관념인가를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河北省의 시골 사람들의 관념은 이와 같다. "家産은 전집안사람들이 공유하는 바이다. 가장은 단지 家産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것일 뿐이다. 만일 토지를 전매하려고 한다면, 가장은 반드시 전가족과 상의해야 한다." 山東省의 시골에도 다음과 같은 관념이 있다. "토지는 결코 가장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며, 전가족이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이 일부분의 재산을 전매하려고 할 경우에도 자기 맘대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濟南 부근 德縣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家産은 '夥裏的'이다. 명의상으로는 가장에 속해 있지만, 사실상 전가족이 공유하는 것이다."라고 생

각한다.

만일 가장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하여 유언을 남겼다 할지라도 이러한 유언은 효력을 갖지 못하며, 家産은 여전히 공평하게 자식들에게 나누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장들은 이러한 유언을 남기지 않는다. 그들은 임종시에 통상적으로 "너희들 모두 나의 종계 지내야 한다."라든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와 같이 유언을 남기게 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살펴보면, 중국인 가족 중에서 가장이 남긴 家産과 관련된 유언은 효력이 없으며, 家産은 결코 가장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며 전가족이 공유하는 산업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河北省 保定縣의 거민들은 "家産은 집안의 금은과 재물이다. 비록 가장이 전매할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먼저 집안 사람들과 상의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한다. 天津 일대에 사는 사람들의 관념은 "家産은 한 집안의 부동산이다. 가장이 자유롭게 처리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가족과 상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가장이 家産을 처리함에 있어 비록 집안 사람들과 상의해야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큰 권한이 있음을 표시하기도 한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의 권한은 아주 컸을 것이며, 家産을 공평하게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는 권한도 있었을 것이다.

이미 말했지만, 가장은 곧 家産의 관리자이며, 가족의 영도자이다. 華北에서는 가장은 통상 '當家的(집주인)'으로 칭해진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을 경우에는 "當家的(집주인) 계십니까?"라고 묻는다. '當家的'은 곧 家務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家務를 처리하는 사람이나, 그래서 '當家的'은 가장의 의미로 변해서 통용되게 되었다. 만일 가장이 나이가 많거나 병이 났을 경우, 가족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當家的를 삼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當家的'은 결코 토지 매매나 혼인 문제, 거액 금액을 대출하는 일 등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가장을 경유해서 처리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가장의 계승에 대하여 설명한다.

- 예1) 兄(오십이세) - 長男(이십이세)
弟(사십오세) - 長男(이십이세)
예2) A 家長(장자) - D 子(연령최장)
B 弟(차자) - E 子(연령중간)
C 弟(삼자) - F 子(연령최소)

예 1) 가족의 경우, 만일 형이 사망하는 경우, 동생이 형의 장자 보다 향렬이 앞서므로 당연히 가장이 될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만일 동생 역시 사망하게 될 경우, 형의 장자와 동생의 장자는 그 향렬이 같으므로 연령이 앞선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다.

가장은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도
혼인을 주재하는 자로서 혼사 일체를
주관한다. 가족의 한 사람이 밖에서
家務이외의 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도
반드시 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 2)의 가족의 경우, 만일 가장을 맡은 장자가 죽었다고 한다면, 가장을 새롭게 결정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먼저 향렬을 보고 다시 나이를 보아서 결정한다. 따라서 예 2)의 가족의 경우, A, B, C, D, E, F 순으로 가장의 인선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제사권은 적장자 계열의 사람이 갖게 된다. 단지 달리 추천을 받은 유능한 사람 한 명이 와서 보좌하게 된다. 동족내에서 족장을 선택하게 될 때에도 역시 반드시 향렬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바꾸어서 말하면, 원칙상 족장은 일족내에서 향렬이 가장 높은 자이다. 만일 향렬이 서로 같은 경우라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족장을 삼는다. 만일에 방계의 외사람이 가

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단지 가족 공유의 家産을 관리하는 책임을 가질 뿐이며, 家産에 대하여 강력한 발언권을 갖지 못하고, 일반적인 가무에 대한 권한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또한 가장의 주요 권한은 공유하는 家産에 대한 관리권과 분할권이지만, 그러나 가족의 도덕생활에 대해서도 가장은 징계권을 갖는다.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도 가장은 혼인을 주재하는 자로서 혼사 일체를 주관한다. 가족의 한 사람이 밖에서 가무 이외의 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도, 반드시 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지에서 일하여 벌어들인 돈도 '同居無異産(함께 거함에는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없다.)'의 원칙하에서 모두 가장에게 귀속된다.

三. 均分繼承

'부모가 살아 계실 동안은 分家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국의 옛 예법이며,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윤리사상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고대의 가족형태는 일반적으로 三代가 함께 살며, 동거하는 가족수도 십여 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조사의 결과에 의거하면, 많은 가정이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分家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分家를 할 경우, 부모가 모두 건재하시거나 혹 한 분이 생존하시게 되면 家産 중에서 일부분의 전지를 떼어내서 부모님께 드려서 '養老地'로 삼게 한다. 만약 부모님이 모두 나이가 많아서 경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식들로 하여

금 경작하게 하고 자식들로부터 세를 받아서 생활비로 삼는다. 또 分家 후에 자식 형제들은 공평하게 부모님의 곡물을 나누어 봉양한다. 이것을 '養老糧'이라고 한다. 또 부모는 分家한 후의 아들의 집을 돌아가면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것을 '輪流飯' 혹은 '輪流管飯'이라고 한다.

또 부모는 養老地의 수입을 딸을 출가시킬 때의 비용으로 남겨 놓는다. 상술한 것과 같이 養老地를 제외한 家産은 모두 공평하게 자식들에게 분배된다. 이러한 계승제도를 '均等繼承' 혹은 '均分繼承', '分頭繼承'이라고 한다. 그러나 딸은 家産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다. 均分繼承은 실제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래에서 약간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한다.

누어 준다. 또 부모가 죽었을 겨우, 장례 비용은 養老地로 지불하며, 만일 장례 비용으로 쓰고 남은 것이 있다면, 공평하게 두 형제가 나누어 갖는다. 이 외에 집, 가축, 농구 등도 공평하게 분배한다. 만약 집안이 가난하여서 分家 후에도 공동으로 농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물건이 적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없을 경우에는 이 물건을 돈으로 환산해서 현금으로 아들들에게 나누어 준다. 예컨대, 형제 두 사람이 있는데, 재산으로는 겨우 300전에 해당하는 소 한 마리가 있을 뿐이다. 이 소를 형이 가져 갔을 경우에는 동생은 형으로부터 150전의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은 균분제는 대단히 철저하게 적용되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식들은

자식들이 分家하기 전의 부모가
남겨두었던 채무는 家産과 같이 모두
자식들에 의해 공평하게 계승된다.
그렇다면 조상에 대한 제사는 分家와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만일 한 가족내에 두 아들과 딸 하나가 있어 열두 畝의 전지를 나누려 하는데, 누이동생이 출가하기 전에 오빠와 함께 생활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열두 畝의 전지 중에서 누이동생의 결혼 비용으로 약 一, 二 畝를 남겨 놓고 큰 아들이 七, 八 畝를, 그 나머지를 동생이 계승하게 된다. 누이동생의 출가 비용으로 보류하는 家産을 '粧奩資'라고 하며, 이것을 현금으로 주었을 경우에는 '姻粉錢'이라고 한다.

또 한 가족이 열두 畝의 전지를 소유하고 있고, 부모가 아직 살아 계신 데, 두 형제가 分家하려고 할 경우에는 부모는 먼저 養老用으로 여섯 畝의 전지를 남겨놓고, 나머지의 전지를 공평하게 두 아들에게 나

부모가 남기고 간 채무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을 '父債子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습속은 중국의 각성에 고르게 존재하고 있다. 외국의 학자들은 이러한 습속에 대하여 자못 흥미를 갖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습속은 가족이 재산을 공유하는 상황하의父子의 연대관계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식들이 分家하기 전에 부모가 남겨두었던 채무는 家産과 같이 모두 자식들에 의해 공평하게 계승된다. 그렇다면 조상에 대한 제사는 分家와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山東省 益都에서는 "家産을 공평하게 자식들에게 나누어 준 것과 마찬가지로 姓氏

와 제사권도 자식들로 공평하게 계승토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河北省의 시골마을에서는 “分家 후에, 매년 淸明節, 칠월 십오일과 新年에는 형제들이 모두 만형 집에 모여서 조상께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비용은 모두가 분담한다.”고 한다. 이러한 습속은 제사비용은 비록 형제들이 분담하지만 제사권은 장자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適長子가 제사권을 계승한다는 관념은 아마도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념은 이미 앞에서 말했지만, 만일 가장이 죽게 되고, 아직 分家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새로운 가장은 항렬과 연령으로 결정되겠지만, 제사권만큼은 장자, 장손 등과 같이 직계혈친에 의하여 계승된다.

分家할 때에는 족장, 촌장 및 가까운 마을의 유력 인사들이 반드시 모여서 상의를 한 후에 모든 家産을 몇 조로 나눈다. 그런 후에 매조를 종이에 쓴 다음 죽통 속에 넣고는, 조상의 신위와 천지신 앞에서 향을 사르며 예배를 드린 다음 추첨을 하게 된다. 추첨을 할 때, 반드시 分家하는 사람의 숫자에 맞추어서 ‘분단’ 혹은 ‘분책’이라는 증서를 작성하고는 이 증서에 나누는 물건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증인(감증인)의 서명을 기입한다. 만일 이러한 증서가 없다면 分家是 효력이 없게 된다. 증서에는 통상 ‘同居不睦’ 등의 글자를 쓰게 된다. 그리고 分家할 경우에는 모두가 공평하게 家産을 분배할 뿐 아니라 같은 때에 分家를 한다. 分家의 수속을 모두 필한 후에 온집안사람들과 증서에서 서명한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다. 이것을 ‘散夥飯’이라고 한다. 이 ‘散夥飯’은 모두 곧 이별하게 되며 장차 부뚜막을 나누어 밥을 먹게 될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分家の 원인은 곳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서이다.

1. 同壻간의 불화
2. 兄弟간의 불화
3. 姑婦간의 불화
4. 父子간의 불화

그러나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도

있다. 예컨대, 형제 두 사람이 있는데, 동생은 온종일 먹기만 하고 게을러서 본업에 힘쓰지 않는다. 그러나 分家시에 재산은 반드시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므로, 형쪽에서 서둘러서 分家하는 경우가 있다. 또 형제의 수입이 다른 경우, 혹은 형제간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 곧 分家를 요구한다.

각 지역의 예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分家の 외재적 원인으로는 匪賊의 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혹은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혹은 병역이나 요역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 등이 있다. 그러나 주요한 원인은 내재적인 원인에 있다. 즉 가족제도 내부에서 안고 있는 각종 모순과 개인주의 경향에 있다. 가족 내부에서 分家를 재촉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의 발전에 따른 가족 성원간의 수입의 불균형에 있다. 더 이상 ‘同居無異産’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게 되며, 그래서 分家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이상의 均分繼承제는 文獻上으로는 西漢 초기에서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계승제는 사회에 대하여서도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만일 각 시대마다 이 均分繼承제가 모두 시행되었다고 한다면, 이전에 대규모의 경작을 했던 농가는 몇 대를 거친 후에는 소규모의 영세농으로 전락하게 된다. 물론 원래 있던 재산의 과다와 후대의 경영의 우열에 의하여 농가의 몰락의 속도가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필연적으로 후에 가서는 영세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농업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의 상업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

중국에 있어 조상의 家産을 계승하여 부유하게 된 경우가 비교적 적은 원인은 均分繼承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농가가 대부분 소규모의 영세농으로 전락하였던 것은 곧 중국의 가족제도 자체가 부른 필연적인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㉞

(〈中國民俗學〉中에서)

Merry Christmas!



중국식 화장실에 관하여

화장실 모두가 함께 사용한다.

거리를 걷고 있으면, 厕所(쳐쑤어)라고 쓰여진 간판이나, '女厕所(늬쳐쑤어)' '男厕所(난쳐쑤어)'라고 쓰여진 벽을 볼 수 있다. 이것들은 공중변소인데, 뒷골목이나 사람들이 들끓는 골목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중국의 일반가정에는 화장실이 없고, 아파트 등에도 각층에 공동사용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물론 상점이나 식당 안에도 없다. 굳이 일반가정이라고 한 것은 종류 이상이나 군인 아파트 등에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집이 어느 정도의 지위를 지녔는가는 그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다.

깜짝 놀라는 공중화장실

화장실이라는 곳은 어처구니가 없다. 휴지가 없고, 물이 나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물쇠나 벽조차 없다. 즉 한 칸씩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불과 높이 1m도 되지 않는 칸막이가 있고 50cm×20cm 정도의 구멍이 있을 뿐이다. 그 중에는 칸막이조차 없고, 흙이 옆으로 쭉 뚫려 있어서, 앞사람의 소변을 보면서 누든가, 자기의 소변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되어 곤란한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도시에서라면 지붕도 갖추고 있고 독립된 건물로 된 화장실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교외로 나가든가, 장거리 버스로 이동중을 지나는 농촌이라면, 지붕도 없이 다만 벽돌로 된 벽으로 둘러싸여 구멍만 하나인 곳일 것이다.

일종의 사고장이라는 화장실

중국인은 '나(我:워)'하는 것은 매우 소중히 여기지만 '공(公:공)'이 되면 자기 것이 아니니까 관계없다고 하는 생각이 강하다. 그래서인지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든지 청결하게 하려고 하는 배려는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변소는 지나가는 사람이 사용한다기 보다는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그곳은 또한 휴식장소라고 말할 수도 있다. 우선 통로에서 바지를 내리고, 통로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허리를 낮춘 다음 시끄럽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 화장실회의가 열리는 셈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실제로 화장실 입구에 섰을 때 안으로 발을 딛고 들어갈 용기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쪽의 망설이는 기분 따위는 전혀 무시하는 듯이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된다. 여성의 경우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정색하고 걸음을 옮기면서 쌀쌀한 표정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더라도 마음 속으로는 '아, 가장 안쪽이 비어 있었으면...'하고 바라게 될 것이다.

겉모습으로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 없지만 사용하는 휴지(그들은 보통 티슈 페이퍼와 같은 고급휴지는 사용하지 않고, 뽀뽀한 종이를 사용한다) 때문에 알려지게 되고 주목을 받게 된다. 칸막이 너머 통로로부터 시선이 쏠려와도 어쩔 수 없다. 게다가 적은 공간의 화장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맨앞에 선 채로 용변을 보아야 하므로 참으로 거북스럽다.

◆ 선교도서 안내 ◆

- | | |
|-------------------------------------|--------|
| 1.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
(전문인협력기구) | 3,000원 |
| 2. 중국선교 -- 교회의 대장정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3,500원 |
| 3. 중국선교핸드북(두란노 서원) | 4,800원 |
| 4.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 1,000원 |
| 5. 중국어성경번역소사 | 1,000원 |
| 6. 神愛世人 | 1,500원 |
| 7. 만 남 | 1,500원 |

▣ 교재 안내 ▣

- | | |
|------------------------------------|------------------|
| 1. 中國語 聖經
(신약+ 시편+ 잠언: 주음부호) | 7,000원 |
| 2. 使徒信經, 主禱文 외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 | 1,500원
1,000원 |
| 3. 經文背誦
經文背誦 Tape | 1,500원
1,000원 |
| 4. 睡夢鄉
睡夢鄉 Tape | 1,000원
1,000원 |
| 5. 飛行屋
飛行屋 Tape | 1,000원
1,000원 |
| 6. 初級中國語 I
初級中國語 I Tape(10개) | 3,500원
6,000원 |
| 7. 初級中國語 II
初級中國語 II Tape(10개) | 3,500원
7,000원 |
| 8. 我的第一本聖經
我的第一本聖經 Tape | 2,500원
1,000원 |
| 9. 사복음서 낭독 Tape(12개) | 10,000원 |
| 10. 信仰讀本(Good News Leader) | 5,000원 |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서
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은 우편으로 신청해 주세요.
(TEL. 594-8038, 533-5497)

행운, 불운의 세계이다.

이런 모든 일이 귀찮고 성가시다고 생각
하는 사람은, 호텔에 나서기 전에 용변을
끝내두든가, 호텔에 돌아올 때까지 참는
수밖에 없다. 飯店(판디엔)같은 큰 호텔이
라면 그런 대로 화장실은 있으며, 자물쇠
가 허술하다는 것만 개의치 않는다면 1인
용 화장실로 훌륭하다.

변소에는 우선 화장지가 없다고 생각하
는 편이 좋다. 외출시에는 화장지가 필수
품이다. 거리에서 사려고 해도, 지방에 따
라서 뻔뻔한 것밖에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두루마리 화장지 가운데의 딱딱한
부분을 빼고 가지고 다니면 편리하다. 그
리고 수도가 없기 때문에 용변 후 손을 씻
을 수도 없다. 신경 쓰이는 사람은 물수건
이나 젖은 티슈를 준비해서 다니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가지고 다니던 짐을 얹
어둘 만한 장소도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짐을 등에 지거나 비스듬히 걸쳐 놓
아야 한다. 그런데 밤에는 화장실 안이 아
주 캄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자.
대부분의 변소에는 전등이라는 것이 없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은 다행이
지만 손으로 더듬어서 용변을 보는 것만큼
불안한 일도 없다.

중국의 공중변소는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머리를 들이밀고 들어가 볼 만한 가
치가 있다. 경험이 생기면 만약 어딘가 화
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참을 수 없을 정도
에 이를 때 의외로 수월하게 용변을 볼 수
있다. 그곳에 다른사람이 있든 없든, 용변
을 보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것이다. 이것
은 확실히 행운이나, 불운이나의 갈림길인
것이다. ☺

(세계를 간다. 중국편 중에서)

선교참고도서

다른 행진곡 불가사의한 中國人 허드슨 테일러



다른 행진곡/ 폴린 해밀톤 지음, 민문영 옮김,
조이선교회 (3,500원)

이 책은 중국선교사였던 폴린 해밀톤의 자서전이다. 그녀는 불치의 병인 암에 걸려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책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인도하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름답게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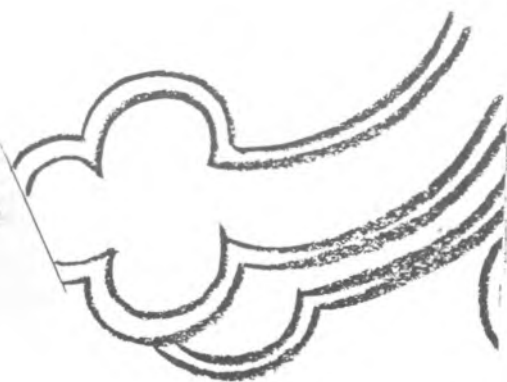
하나님은 폴린 해밀톤이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녀를 부르셨다. 그 후 그녀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친 삶이 되었다.

그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과학 분야에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스미스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기꺼이 바쳤다. 어떤 중국 대학에서의 초빙을 거절하고 중국내지선교회(CIM)의 선교사로 중국에 갔다.

때로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떠맡아야 했고, 또 어떤 때는 그 일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의 헌신을 상기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였다. 부름받은 사역을 이루기까지는 수년이 걸렸으나, 그녀는 영적 결실을 크게 거두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자이고, 하늘이 계신 아버지이자 모든 일의 인도자였다. 그리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였다.

이 책은 선교사로서 본을 보이면서, 환경을 통해 보여주는 주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던 폴린 해밀톤의 삶을 그리고 있는데, 읽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진한 감동을 준다. 그녀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을 때, 어찌 그 하나님께 순종,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불가사의한 中國人 1,2/ 정석원 지음.
도서출판 대흥 (각권 5,500)

이 책은 현재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중문과에 재직중인 정석원 교수가 쓴 것이다. 그가 근 7년에 걸친 台灣 유학생활에서 체험한 경험과 책에서 얻은 지식을 종합하여 쓴 것으로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자연환경과 사람을 모두 알아야 한다. 앞의 것이 하드웨어(hardware)라면 뒤의 것은 소프트웨어(software)라 하겠다. 컴퓨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부터 알아야 하듯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중국의 땅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책은 중국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적은 것이다. 중국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셈이다.” 라고 서문에서 작자가 말한 바와 같이 중국 사람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 2권의 시리즈로 되어있다.

그는 또 “우리는 중국 사람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 있다. 우리가 중국을 알고 있는 것은 역사속의 중국이며 그것도 관념적으로만 이해해 왔다. 즉 그렇게 들었으니 그럴 것이라는 막연한 지식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들은 변했으며 지금도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

이 책 1권에서는 먼저 어떻게 중국을 알아야 할 것이냐?로부터 시작하여 중국의 민족구성, 중국의 음식문화와 차(茶), 文學, 상업관에 대해 다루었고, 2권에서는 중국인들의 교육, 의식의 뿌리, 인생철학, 생활의 관습, 내면세계, 인간관계 등등을 다루었다.

한 나라의 국민성이란 오랜 역사와 넓은 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성은 복합적이며 다양하다. 거기에다 중국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 한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해서 중국과 중국인을 확실히 알았다고 말하기엔 어렵겠지만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 할 수는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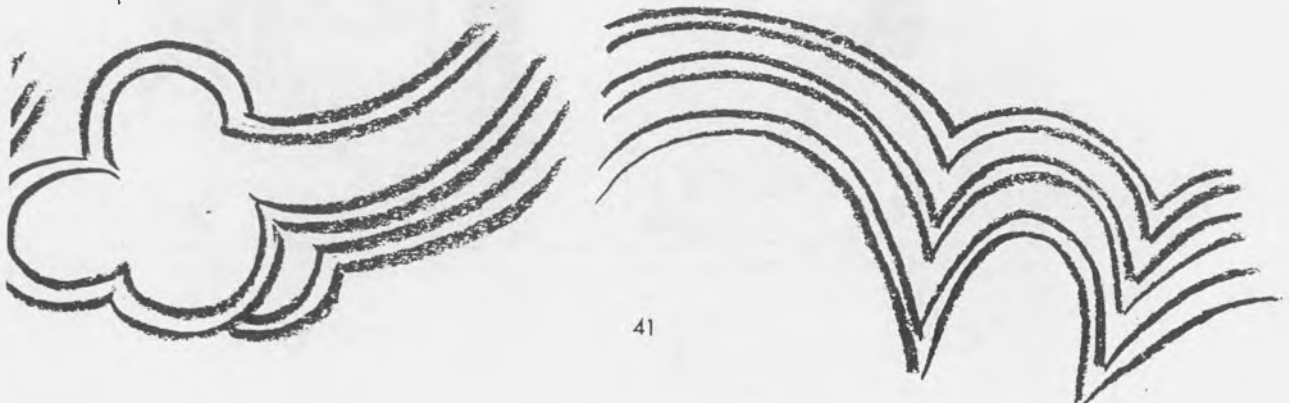
허드슨테일러(상, 하권) / 로저 스티어 지음.
윤종석 옮김, 두란노서원 (각권 3,500)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영혼에 엄청난 빛을 쏟아부어 주셨다. 나는 그간 주님으로부터 수액(樹液)과 충만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가를 깨달았다.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몸의 지체이며 그분의 살과 뼈의 일부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위 글은 『허드슨 테일러』에 실린 내용으로 중국내륙선교회 창시자 허드슨 테일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체험한 능력을 고백한 것이다. 그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만 구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사역을 하면서 “①하나님의 충족하심을 의뢰하라, ②아직 아무도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로 나가라, ③그곳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라, ④믿는 자들을 가르치며 자국민 지도자를 훈련시키라” 등의 원리를 적용했다.

“허드슨 테일러만큼 중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도 많지 않다. 그는 기꺼이 전통을 깨뜨리고 중국 복장을 입고 살았다. 교파를 뛰어넘어 팀을 이뤄 일한 그의 열정은 대단했다. 그의 꿈은 언제나 복음을 들고 새로운 미개척지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확신으로 가득차 있었다.”고 빌리함 목사가 이 책 서문에서 이미 말하고 있다.

이 책에는 단순한 삶, 충분한 사고(思考)가 선행되는 순종, 확신에 찬 기도, 그리고 오래 참음과 인내 등에 관한 원리들이 잘 나타나 있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돌아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또 이 책은 중국선교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느끼게 할 것이다.



5천여 명이 배불리 먹다.



주 예수께서 온종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가 고프다."
"저에게 먹을 것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들을 앉게 하여라."



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사람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又一件神迹發生了!

또 하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有五千多人吃，并且都吃飽了
把剩下的零碎收拾起來，
裝滿了十二籃子。

5,000여 명이 먹었는데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我們要
尊他爲王!”

“他就是先知
所豫言的
救世主了。”

“우리들은 왕 되신 그(예수)를
존경해야 한다.”
“그는 곧 선지자가 예언했던 구세주다.”



“你們先渡海過去，
我來散開衆人”

“너희들은 먼저 바다를 건너가라
내가 무리를 흩어보내겠다.”

최근 중국동향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제공

종교

* 中國, 러시아선교에 신중 요청

문화부는 지난 9월 23일 중국 및 구소련지역의 선교활동에 대한 협조공문을 각 교단과 선교단체에 발송해 이 지역의 선교활동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화부는 중국선교의 문제점을 지적, 이의 자체를 요청했다. 이는 재외 한인교회의 과열선교활동, 친척방문형식으로 조선족을 국내로 초청하는 선교활동, 한민족에 대한 집중선교로 민족감정을 유발시키는 문제 등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중국정부를 자극하여 조선족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파송선교사 선발기준 강화 및 현지 사역, 풍습 등에 대한 교양교육 강화,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하에 선교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북음신문 92.10.4)

* 정광운 주교 내년초 한국교회 방문

한중수교 이후 중국교회 최고 지도자인 정광운 주교가 내년초에 한국교회를 방문한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 대표단이

중국기독교협회 초청으로 내년 8월말경 중국교회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92.10.7)

* 연길교회 김성하 목사 9월 29일 소천

중국의 연길교회서 시무하던 김성하 목사가 9월 29일에 소천, 10월 1일에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사인은 뇌출혈이었으며 유해는 화장되어 김목사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통화지구로 운구돼 안장되었다.

한편 연길교회 온 성도가 김목사의 소천을 애도하는 가운데 엄숙히 치루어진 장례식에는 버스만도 67대가 나섰을 정도로 조객들의 행렬이 줄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선교신문 92.11.2)

* 중국 신학교 졸업생 약 4백 명 배출

최근 「아미티」 통신은 올해 안에 중국내 14개 신학연구소를 통해 3백67명의 신학졸업생이 배출될 것이라는 중국기독교협의회(CCC) 신학교육위원회의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同 통신은 이와 함께 지난 85년 이후 1천5백 명 이상의 졸업생이 배출돼 이 중 1천3백여 명은 이미 지역교회에 시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에는

아시아교회협의회(CCA) 대표단이 CCC를 방문, 지역 에큐메니칼 단체와 사업의 참가 요청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독교보 92.11.7, 크리스천신문 92.11.14)

* 종교건물의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만

중양사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성(省) 民政廳은 현재 대만성의 평균 2.47평방 킬로미터당 종교건물이 있어서 밀도상 세계제일이라고 말했다. 민정청은 통계조사를 거쳐 현재 등록된 종교는 크게 12교파이고 각교파의 사원이나 교회의 수를 나누어보면 도교가 6,514個所, 불교가 1,566個所, 理教가 25個所, 軒轅教가 6個所, 天帝教가 1個所, 一貫道가 25個所, 天德教가 1個所, 天主教가 662個所, 基督教가 1,745個所, 回教가 2個所, 天理教가 12個所, 大同教가 1個所, 합계 일만오백사십 개소라고 말했다.

민정청은 이상 각 교파의 사원과 교회 외에도 등록하지 않은 재단 3,846個所이기 때문에 모두 14,386個所이며 대만성 6,6442리의 村里수를 훨씬 초과하여 평균 2.47평방킬로미터마다 사원이나 교회가 하나씩 있어 밀도상 세계제일이라고 말한다. (〈文匯報〉 92.5.21)

*** 天主教 신부 3人的 自由恢復**

미국 상회 전회장인 康原是 중국에서 옥에 갇혔던 3명의 늙은 천주교 신부들이 석방되었다고 말했다. 석방된 3인의 천주교 신부는 劉貫東, 王益駿, 근덕진이며 모두 70세를 넘었다.

유관동 신부와 완익준 신부는 중국법률에 저촉되어 勞動敎養處分을 받고, 각기 하북성과 절강성에서 노동하던 중 반 년 전에 풀려났다. 그들은 인척이 없으므로 당지의 종교관계기관이 이후 그들의 생활비용을 부담하였다.

근덕진 신부는 하남성 사법기관에 의해 2년 전 가석방되었다. 그는 국가의 형법을 저촉했다는 죄명으로 1982년 이래 15년 간 갇혀있었다.

康原是 중국 사법기관의 통지를 받고 3명의 천주교 신부가 석방된 것을 알았다고 말한다. 그는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국회가 앞으로 토론하려는 중국 무역최혜국지위문제와 무관하다고 믿고 있다.

(〈明報〉 92.5.23)

*** 四川省 神哲학원에 교육과정을 개선함**

중국서남부 사천성 成都에 위치한 四川省 신학원은 현재의 신학추세를 따라 교육을 개선하고자 교과과정을 수정하고 있다. 50-70년대의 정치운동 기간 동안 중국의 수도원은 팽박 속에 폐쇄되었으나 1979년 落實종교정책 이후 10개가 넘는 전국地區와 敎區의 수도원이 다시 승인을 받고 열렸다.

현재 사천성 神哲學院 부원장인 徐 주교는 현재 수도원에는 5인의 강사가 성경, 역사, 라틴어와 신학을 맡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40년대에 훈련받았다고

말한다. 그들이 이전에 배운 것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으므로 교과과정을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

(〈公教報〉 92.6.26)

*** 북경의 落實종교정책**

「종교신앙의 자유가 없는 정책은 오늘날 종교의 정상활동을 불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전도사역에 종사하고 종교활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정책의 안정성과 종교신앙의 자유의 진실성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이는 천주교 북경 교구주교 傅鐵山の 체험담이다.

부철산 주교는 현재 북경시에 있는 14개소 성당에 교역자와 직원은 70人이며 신학원이 한 군데 있다고 소개한다. 북경시의 천주교인은 4만여 명으로서 모두 영세, 미사, 혼배성사 등 각종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10년 동안 북경시에서는 92개소의 사원과 교회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 중 불교관계 7개소, 도교 1개소, 이슬람교의 清真寺가 62個所, 천주교회가 14개소, 기독교회가 8개소이다. 각종 종교조직이 이들 사원과 교회에서 행하는 종교활동은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정부의 비준을 거쳐 여기서는 종교서적과 종교용품, 종교예술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재 북경시의 종교관계 직업인은 400여 명으로 그중 불교관계는 141인, 이슬람교는 137人, 천주교는 70人, 기독교는 43人이다.

(〈文匯報〉 92.7.5)

*** 河南의 성도들은 焦作敎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람.**

〈天風〉 7월호에는 河南 신도의

편지가 실렸는데, 이는 河南省 북부 焦作區의 교회 부동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것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이 신도는 해당 市에서 敎會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때에 지속적으로 오십 칸의 건물의 소유권을 교회에 돌려주었으나,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단지 12칸으로 전건물의 20%를 점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여전히 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말하는 바에 의하면, 비록 정부에서는 주민들이 때맞춰 이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옮기고자하는 마음이 없으며, 교회가 표면에 나서서 교섭하였으나 일이 성사되지 못하였고, 주민들이 방세를 내지 않는 것이 30개월이나 된다는 것이다.

또 각 가정 주민들은 항상 일을 만들어 교회의 집회를 방해한다. 예컨대, 교회당 뜰에 돌조각을 던지기도 하고, 일요일에 고의로 나팔소리를 크게 불기도 한다.

1988년 8월 14일 심지어 주민과 신도들간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였다. 집회처가 없는 관계로 어떤 신도들은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혹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날을 막론하고 큰 뜰 안에서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해야 하니, 대단히 불편하다. 따라서 신도들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天風〉, 復總115號, 92.7)

*** 해외인사의 중국선교**

어느 목사가 올해 6월 28일의 〈南華日報〉에 중국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복음사역을 했으며 또 어떻게 중국에 전도지, 쪽복음, 신앙서적, 성경이 전파되고 있는지를 게재했다. 예를 들어 그는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가는 길, 어느 省의 해관이 비교적 관대하고 공안국에 체포된 뒤의 심문상황과 해관검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썼다. 끝으로 그는 홍콩의 신도에게 귀국시 많은 성경을 휴대하여 대륙내의 신도에게 공급하도록 격려하며 아울러 성경이 몰수되고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게 발생하므로 두려

워 할 필요없다고 말했다.
(《南華日報》 1992. 6. 25)

* 종교선전품 불법 살포

四川省 공안청은 출입국관리처에 세 명의 캐나다사람이 들어온 약 100kg무게에 41종의 종교선전품이 감속성과 사천성경내에 불법 살포되어 경찰이 사천성 阿壩

州에서 금지시켰으며 세 사람은 약 60kg의 종교 선전품과 12개의 중국어 녹음 테이프가 살포되었음을 인정했고 이것이 중국 법률을 위반한 행위였음도 인정했다. 공안부는 법에 따라 종교선전품을 몰수하고 그들의 잘못을 승인하게 하고 체제기간을 단축시켰다. (《信報》 1992. 7. 5)

한중관계

* 韓中 科技협정 체결

29일 오전 釣魚臺에서 韓·中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했다.

과학기술협정은 韓中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매년 상호방문 개최를 통해 공동 연구와 과학기술자 및 기술정보교류 등 양국간의 구체적 협력사업을 협의, 추진해 나갈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92. 9. 29)

* 中國, 23개 프로젝트 제시

중국의 제8차5개년계획(91~95년)의 주요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대외경제무역부 장관은 28일 열린 韓中통상장관회담에서 우리나라 상공부장관에게 제8차5개년계획의 주요사업에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면서 한국기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23개 프로젝트의 목록을 제시했다. (한국일보 92. 9. 30)

* 韓中 4개 協定 체결

韓中양국은 30일 상오 北京에서 민간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을 정부간 협정으로 격상, 서명하고 과학기술협력협정과 경제, 무역, 기술 등 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을 새로이 체결했다.

(한국, 국민일보 92. 9. 30)

* “大陸버스 무작정 타면 낭패”

韓中수교 이후 국내기업들의 중국진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 국내기업들은 중국현지의 투자관행과 상거래, 고용제도 등에 관한 사전정보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진출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은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고용과 출자, 임대계약 등에서 국내제도와는 판이할 정도로 제약이 많으므로 국내기업이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에 이끌려 무작정 나섰다가는 실패를 보기 십상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일보 92. 9. 30)

* 韓-中 금융차별 철폐추진

정부는 韓中정상회담에서 양국간 經協확대방안의 하나로 금융협력을 우선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곧 종합적인 韓中금융협력 확대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대책에는 △양국 금융기관의 상호진출과 지점 개설을 대폭 앞당기고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차별 대우를 양국 금융기관에 한해서는 철폐하며 △필요할 경우 양국합작의 투자은행도 설립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92. 10. 2)

* 中國투자 급증

올들어 우리기업의 對중국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들어 8월까지 우리기업의 中國투자 허가실적은 1백42건, 1억2천3백만 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건수로는 1백45%, 금액으로 2백25%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조선일보 92. 10. 3)

* 中國 최대 의류수입대 상국으로 부상

올들어 중저가제품을 중심으로 의류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국이 이탈리아와 일본을 제치고 최대 의류수입대상국으로 부상, 의류업체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의류수입 증가율은 지난 91년의 25.3%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국민일보 92. 10. 5)

* “中國, 「6.25」 사과이유 없다”

「韓中 수교회담 과정에서 중국정부가 6.25와 관련해 한국정부에 유감을 표했다는 한국언론들의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은 6.25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張庭延 초대 駐韓中國대사는 9일 서울 무교동 중국국제상회 서울대표부에서 부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쌍방은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6.25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92.10.10)

* 中國 원단철도 이용 유럽 수출

지금까지 인도양을 거쳐 유럽에 수출되던 우리상품이 오는 12월부터 중국대륙횡단철도(TCR)를 통해 유럽내륙으로 직접 수송된다. 중국내륙을 통해 수출될 경우 기존의 인도양과 수에즈운하를 거치는 해상루트보다 같은 운임조건에서 최고 17일까지 남기를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민일보 92.10.20)

* 中國농산물 “물밀듯”

올들어 中國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의 절반 정도가 국내 수입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4일 상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수입되는 20대 농산물 가운데 9개 품목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말까지 1천7백40만 달러어치가 들어온 건조채소와 3백4만 달러어치가 수입된 동물의 털은 점유율이 각각 91.8%와 96.8%에 달하고 있다. (국민일보 92.10.24, 한국일보 92.10.25)

* “기업 中國진출 너무 조급”

「우리 경제 최후의 개척지인 중국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단점을 차근차근 연구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만이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중국과의 교류에 숨은 공을 인정받아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받은 趙利濟씨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앉은 자리에서 코베일 수 있는 나라인 중국과 교류를 하는 우리 나라나 기업의 태도가 너무 조급하다」면서 「원칙을 지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안할 것은 분명히 선을 긋는 태도가 오히려 중국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92.10.27)

* 對中무역수지 흑자로 반전
간접교역을 포함한 對중국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상공부는 26일, 지난해 10억7천만달러의 적자를 보이던 對中國 무역수지가 지난 5월 이후 흑자행진을 지속, 8월말 현재 무역누계가 흑자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對중국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은 중국과의 본격적인 교역이 시작된 지난 88년 이후 처음이다. (조선일보 92.10.28, 동아일보 92.10.28)

* 天津 입주희망 기업 1백46개 업체 집계

중국 天津에 조성될 한국공단 입주 희망기업이 정부계획의 2배에 이르는 1백26개 업체로 집계됐다.

상공부는 30일 天津공단 입주업체 선정에 위한 수요조사 결과, 섬유-피혁 54개社, 기계장비 49개社 등 모두 1백46개사가 입주를 희망, 정부계획(70~80개社)의 2배에 이르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92.10.31)

* “萬里長城 구경 가자” 무분별 出國 러시

韓中수교 이후 중국여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여행자수는 올들어 2만9천6백여 명(9월말 현재)으로 지난해보다 2.5배 늘었고 한중수교(8월24일)이후인 9월 한달 동안 5천4백 명이 출국, 작년 같은 기간의 1천2백50 명보다 4.3배나 급증했다. 이처럼 중국여행붐이 일면서 한국관광객들의 거친 매너가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과의 체제와 관습상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겪는 불편과 혼란이 빈발하고 있다. (국민일보 92.11.6)

* 제조업 中國진출 신중해야

대구지역 제조업체들의 中國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으나 국내생산기반과 기술이전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공동화현상과 中國에서 생산된 저가품의 국내역수출로 인한 동종업계의 타격 등이 예상되고 있어 對中國진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92.11.7)

* 中國 지방정부 對韓투자유치 경쟁

8월 韓中修交 이후 중국 지방정부가 잇따라 경제 사절단을 파견, 對韓투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延邊조선족자치주 등 지방정부 단위의 사절단은 국내기업에 상대로 투자환경설명회 및 제품전시회를 개최하는 한편 우리정부 관계자와 기업인들을 상대로 직접 접촉을 벌여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는 데 힘쓰고 있다. (국민일보 92.11.9)

*** 中國 교역량 계속급증**

지난해 수출에서 우리 나라를 주월했던 中國이 곧 전체 交易규모에서도 우리를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中國은 지난 6월 사상 처음으로 월간 교역규모에서 우리를 앞지른 데 이어 지난 8-10월에도 연속 우리를 제치고 세계11대 교역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中國은 지난해 우리 보다 교역규모가 1백77억 달러 적었으나 올 들어서는 지난 10월 말까지 67억4천만 달러로 좁혀졌으며 연말까지는 차이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앙, 동아, 국민일보 92.11.12)

*** 海運시장 자유 開放案**

한국과 중국의 정부간 첫 공식 해운회담이 이들 간 예정으로 12일 중국 북경에서 열렸다.

양국간에 수교가 된 데다 해운 물동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해운협정 체결을 서둘러야 할 형편이지만 해운시장개방, 상대방에서의 대우문제등 현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앙일보 92.11.12)



정 치

*** 中日수교 20돌**

中國과 日本은 29일 국교정상화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단계로의 관계정립을 모색하고 있다.

中日양국은 국교정상화 2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고 다나카 나카소네(中曾根) 前일본수상의 중국방문, 吳學謙 중국부총리의 일본방문 등 양국 정치인들의 교환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일보 92.29)

*** 「領海침범」 갈등 확산**

최근 홍콩영해를 침범한 중국 경찰과 홍콩해상경찰간에 심각한 수준의 무력충돌이 연이어 벌어지는가 하면 뒤이어 중국인민해방군이 빠르면 1993년 안에 홍콩에 진주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97년 중국반환을 앞둔 홍콩의 장래 안보문제가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조선일보 92.10.4)

*** 趙紫陽 처벌도 복권도 않기로**

中國共產黨은 지난 89년의 天安門사태와 관련해 당총서기직에서 물러난 趙紫陽(73)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고 9일 발표하면서 그를 처벌하지도 복권시키지도 않기로 결정했다. (조선, 국민일보 92.10.10)

*** 江澤民, 국가 主席 겸임**

오는 12일 中國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江澤民총서기의 국가주석 겸임 등 새로운 지도부의 인사가 기본적으로 확정됐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0일 홍콩의 중립계 신문 明報를 인용, 보도했다.

(조선일보 92.10.11)

*** 中國14全大 개막**

역사적인 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가 2천여 명의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전 9

시, 북경인민대회장에서 개막됐다.

14全大 의장단은 11일 제1차회의를 열고 최고실력자 鄧小平을 포함, 31명의 의장단 상무위원을 선출했으며, 당헌개정과 인사개편안을 추진하기 위한 14차 당중앙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92.10.13)

*** 개혁行步 가속화**

江澤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12일 개막된 제14기 全國代表大會(14全大會)에서 행한 政治報告 내용은 개혁, 개방의 확대를 통한 「중국특유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란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사실상 그 동안의 중앙통제적 계획경제를 탈피, 서구의 시장경제에 기초한 중국적 자본주의를 주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일보 92.10.13)

*** 中國軍 수뇌부 잇따라鄧 지지 선언**

中國공산당 제14期 전국대표자 대회(14全)에 참석중인 인민해방군 대표단의 楊尙昆 黨중앙군사위 제1 부주석 겸 국가주석을 비롯, 軍 최고 지도부와 7大軍區, 해군, 공군 사령관들은 잇따라 최고 실력자 鄧小平의 개혁, 개방 노선과 江澤民 총서기의 당대회 보고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 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15일 北京發로 보도했다.

(중앙일보 92.10.15)

*** 鄧노선은 마법의 兵器**

중국지도부는 15일 鄧의 실용주의적 개혁정책이 毛사상을 대체하게 될 「마법의 병기」라고 극찬했다고 人民日報가 보도했다.

人民日報는 이날 장문의 논평에서 「鄧의 사상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한 가장 강력한 마법의 병기」라면서 「黨은 이러한 마법의 병기를 직접 거머쥐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92.10.16)

*** 中國 중앙췌 대쪽 물갈이**

중국공산당 제14차 全國代表大會(14全大會)에서 정책결정 기구인 中央委員會 위원 및 후보위원중 3분의 1 이상인 1백 명을 주로 젊은 인사들로 물갈이할 것이라고 文匯報가 17일 보도했다. (조선일보 92.10.18)

*** 중국 원로 8명 中央委서 퇴진**

중국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14大)가 18일 폐막과 더불어 楊尙昆 국가주석 등 원로 8명을 중앙위원회에서 퇴진시킴으로

써 중국 권력의 대대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조선, 한국일보 92.10.19)

*** 江澤民 1人체제 中國의 앞날**

중국공산당은 제14차 전국대표대회와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中全會)를 통해 개혁과 일색으로 세대교체를 단행, 최고실력자 鄧小平 이후 변함없이 개혁을 추진할 기틀을 마련했다.

외관상 江澤民 총서기의 1인체제의 확립과 개혁정신에 충만한 신진관료들의 대거 등장으로 특징지어진 이번 인사개편은 일단 중국 개혁의 전도를 밝게 만들었다. (국민일보 92.10.20)

*** 「홍콩 政治개혁」 싸고 마찰**

오는 97년 홍콩의 中國이양을 앞두고 「홍콩정치개혁안」과 홍콩 新공항건설공사를 둘러싼 중국과 홍콩간의 마찰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크리스 패튼 홍콩총독은 21일 北京에서 중국 국무원의 홍콩-마카오 판공실 魯平 주임과 만나 이 문제와 관련,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동아일보 92.10.22)



*** 改革 반대黨員 “단호조치”**

중국공산당의 국내 감시기구인 기율검사위는 22일 최고실력자 鄧小平의 시장경제정책에 반대하는 당원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통신은 기율검사위가 이제는 「개방, 개혁정책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을 적발하고 경제개발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주의를 방어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92.10.23)

*** 中國, 「제3국 內政간섭」 포기**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전파를 위해 그 동안 정당한 것으로 평가해온 제3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중국 관영언론들이 22일 발표된 중국공산당 新黨章(黨憲)을 인용, 일제히 보도했다.

인민일보 등은 이날 중국공산당이 지난 18일 폐막된 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개정한 黨章에서 제국주의 세력에 억압받는 제3국 인민들은 앞으로 중국의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 국민일보 92.10.23)

*** 日王, 中國에 반성의 뜻 표시**

日王으로서는 처음 중국을 방문중인 아키히토(明仁) 국왕은 23일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중국 침략에 대해 깊은 반성의 뜻을 표시했으나 중국당국은 정식적인 사과가 아니지만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일보 92.10.24)

*** 朱鎔基 常務부총리로**

중국 국무원 副총리로 최근 黨 제14차 전국대표자대회에서 黨 최고핵심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한 朱鎔基가 30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총리 유고시 총리직을 대행하는 常務부총리로 공식임명됐다고 홍콩의 중립계산문 明報가 31일 보도했다.

(조선일보 92.11.1)

*** 中國, 「台灣연방」 검토**

中國 최고 실력자 鄧小平은 최근 中國과 台灣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台灣에 대한 실질적인 양보와 정책상 수정이 이뤄져도 좋다고 언급하면서 연방제 실시 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日本 고도(共同)통신이 5일 발매된 홍콩의 中國계 잡지 鏡報를 인용. 보도했다. (문화일보 92.11.6)

*** 鄧, 후계자 朱鎔基 시사**

중국의 최고실권자 鄧小平은 朱鎔基 부총리가 자신의 후계자임을 시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鄧小平이 지난 5월 22일 북경의 首都철강공사를 시찰할 때의 담화기록전문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鄧小平은 당시 경제문제에 강한 朱부총리의 수완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李鵬총리의 경제발전 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한국일보 92.11.4)

*** 中國 對日수출 급증**

28일 상공부가 입수한 日本관세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말까지 中國의 對日수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1%가 증가한 1백26억2백만 달러에 달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5.2%가 감소

한 84억7천8백만 달러에 불과. 中國의 對日수출이 우리나라의 1.5배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동아일보 92.10.28)

*** 豆滿江개발 北韓 영토임대 에 합의**

북한은 지난 11일 北京에서 열린 두만강개발계획 관련국회의에서 특별경제구역에 포함되는 북한 영토를 대여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유엔개발기구 (UNDP)책임자가 20일 말했다.

(한국일보 92.10.21)

*** 中國 「변동金利」 도입방 침**

중국은 통화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변동금리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陳元 중국인민은행 副행장이 13일 밝혔다.

관영 新華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陳元 인민은행 副행장은 이날 제10차 亞.太연안국 중앙은행 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변동금리체제 도입방침은 국내경제에 시장요인의 영향을 확대하려는 중국 당국의 개혁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92.10.14)



*** 中國 외국인투자 급증**

올해 들어 9월까지 中國에 대한 외국인의 실제 투자는 전년 동기예 비해 1백31%가 늘어난 6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中國 관영 英字紙 차이나 데일리가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對外經濟貿易부의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히고, 외국인투자는 투자건수를 비롯 투자계약액 등에서도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울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2.10.19)

*** 中國 부동산시장 개방**

중국은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인과 외국회사에 대해서도 부동산시장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홍콩의 明報가 4일 보도했다.

명보는 특히 북경시의 경우 외국인과 외국회사의 중국부동산시장 및 부동산 개발사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저장권 관계법령도 새로 제정, 외국의 부동산시장 투자를 뒷받침할 은행의 저당업무 체제도 새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92.11.5)

*** 中國 모든 생필품 5년내 가격 자유화**

중국정부는 현재 약 80%에 해당하는 생필품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기고 있으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전체 생필품가격을 자유화할 계획이라고 관영 新華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8일 국가물가국의 한 관리의 말을 인용. 「중국은 5년 이내에 전체 생필품의 가격체제를 자유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국가경제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제품에 대해서

는 가격통제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92.11.11)

* 中國, 무역大國 급부상

지난해 수출에서 한국을 추월했던 중국이 올들어서는 전체 교역규모에서도 한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12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6월 사상 처음으로 월간 교역규모에서 한국을 앞지른 데 이어 8월과 9월, 10월에도 연속으로 교역규모에서 한국을 추월, 올해 우리 나라를 제치고 세계 11대교역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일보 92.11.12)

* 금년 심한 자연재해

7월 10일의 대략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금년 자연재해 사망자수는 1291명이고 재해의 피해는 인민폐로 155억 원에 달한다. 민정부에 따르면 江西, 福建, 浙江 및 湖南의 재해가 가장 심하고 다음으로 貴州라고 한다. (《星島日報》 1992. 7. 19)

* 한재로 식수 곤란

6월 이래 중국 화북의 대부분 지역에 한재가 퍼져 7월 6일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2.3억여 무가 한재를 입었고 더욱이 山西, 河北, 山東, 河南, 江蘇의 다섯 성이 가장 심하여 일부지역에서는 식수에 곤란을 겪고 있다. (《明報》 1992. 7. 8)



사 회

* 「殺人도박」 휩싸인 중국

중국 남부 廣東省 番禺市에서 만 지난 9개월 동안 적어도 10명 이상의 부인들이 도박에 미친 남편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중국 남부지방에서 도박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고 중국관영 차이나 데일리紙가 보도.

이 신문에 따르면 마작이나 포커 등 도박바람이 중국 남부지방을 휩쓸고 있으며 특히 개혁, 개방의 여파로 여유돈을 갖게 된 일부층이 자신의 부인을 끌고 도박을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어 도박빚 때문에 팔리게 된 부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조선일보 92.10.19)

* 개미는 만병통치약

개미는 모든 질병을 낫게 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으깨 개미 한 사발씩을 먹으면 無病長壽한다고 중국의 개미학자들이 의학세미나에서 주장했다. (국민일보 92.10.22)

* 中國도 주택난이 심각

도시의 경우 주택난이 심각하다. 집이 없어 결혼을 못하기도 하고,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고 집이 배급되길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 집이 배급되더라도 가족들이 각방을 쓴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50년대 이후 주택정책은 직장 과 호적에 등록된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사업」으로 규정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고급간부의 경우 넓은 저택을 염가로 구입할 수 있는 등 불평등이 사회주의 중국에 존재한다. 지난해 上海에서는

처음으로 주택채권 구입제도, 적립금 제도를 실시하는 등 그 동안의 주택 무상분배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조선일보 92.10.29)

* 중국, 문맹률 줄어

유네스코 85년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문맹자수는 2억2천2백17만6천 명.

이는 총인구의 30.7%에 해당하는 것. 그러나 82년 중국이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12세 이상 문맹자는 2억2천9백96만 명이었고 90년에는 1억8천2백25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조선일보 92.10.29)

* 鄧小平의 인기 상승

천안문사태 이후 바닥을 헤맸던 鄧小平의 인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세를 타. 지금은 지난 번의 당대회를 통해 나타났듯이

적극적인 개방 개혁정책 덕분에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독재자」, 「제2의 毛澤東」이란 평가도 있으나 그를 대체할 인물은 없다는 것이 일반인의 생각인 듯하다. (조선일보 92.10.29)

* 중국인들 언론 불신

기본적으로 중국인은 언론을 믿지 않는다.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정부의 술한 거짓말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자신이 판단을 내린다. 중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小道消息」.

中國정부는 신문보다는 라디오나 TV를 통해 주요정책을 국민에게 알린다. 이는 문맹률이 높기 때문이다. 젊은층 중에는 상당수가 외국방송을 듣고 있다.

(조선일보 92.10.29)

* 대륙여성 살인 원인의 분석

여성들의 살인행위는 중국역사 이래 드물지만 있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여성살인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 경계심을 일으키고 있다. 광둥성의 예를 들면 1988년에서 1991년까지 전체 省의 살인범 1천여 명 가운데 여성이 1/10에 이른다. 그 중 고의 살인은 88년에 21명이고 이후 매년 평균 22%씩 증가하여 91년에 8/10에 달하였다.

광둥성 법조계 인사의 분석으로는 이들 여성살인사건은 대부분 연애, 혼인, 가정문제와 관련되며 이들은 서구의 성개방 풍조 속에서 정조를 바침으로 남성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며 일단 남성이 변심하면 생명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여성 살인범은 中, 下 문화계층이 대다수이며 그들은

女工, 農婦거나 미성년의 소녀도 있으며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이들은 개방관념을 반 정도 이해하며 대부분 법률지식이 없고 심지어 살인죄로 사형당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明報》 1992.7.13)

*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악물남용

대륙에서는 많은 아동용 영양제들이 남용되고 있는데 최근 호상에서 유행한 총명약도 그 중 하나다 지혜롭게 만들어 준다는 취지와는 달리 역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어느 가정은 아들에게 1년간 14원에 이르는 총명약류 11종을 먹인 결과 여전히 반에서 꼴찌를 하였으며 그 가정은 궁핍에 허덕이고 있다.

(《星島日報》 1992.6.23)

중국을 위한 중보기도

1. 중국은 14全大를 기점으로 개방을 가속화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중국의 사회·정치 전반을 주장하셔서 복음에 대한 장벽을 철폐해 주시도록
2. 중국의 보도 매체에 중국내 복음사역에 대한 적발사례가 빈번히 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보도사례로 복음사역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도우시며 복음사역자들이 더욱 지혜롭게 일할 수 있게 도우시도록
3. 중국 하남성 焦作고구의 교회소유 부동산 반환이 늦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감동시키셔서 성도들이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우시기를

4. 중국남북에 걸쳐 심각한 자연재해 발생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지역의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우셔서 삶의 회복을 주시고 복음이 이 지역에 강력히 역사되도록 도우시기를
5. 중국대륙에 여성들의 살인행위가 늘고 있다.
하나님께서 중국에 복음이 조속히 확산되고 힘을 발휘하게 하셔서 물질만능과 생명경시의 풍조를 막게 해 주시도록

6. 문화부가 중국선교자제 공문을 띄운다.

하나님께서 각 선교단체와 교단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중 양국 정부 당국자들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지혜롭게 효과적인 선교를 펼치도록 도우시기를

7. 한중간에 각종 협정체결이 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양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하시고 양국이 더불어 발전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 복음이 효과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중국에 전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알림

*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회

지난 9월 29일 소천한 중국연길교회의 김성하 원로목사의 서거에 즈음하여 중국어문선교회는 김 목사를 추모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중국교회 지도자들의 현황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기도와 중국선교유관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시: 1992년 12월 14일(월) 오후 7:00

장소: 서초구 방배본동 이수성결교회

내용: 1부 - 중국교회 지도자 현황

(발표자: 유관지 목사(극동방송))

2부 -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회

3부 - 간담회

자세한 문의는 594-8038(중국어문선교회)

* 사랑의 집

중국교포선교협회의회는 '사랑의 집'을 후원할 교회와 성도를 찾습니다. 신림동에 소재한 '사랑의 집'을 통해 수많은 중국교포들이 신앙훈련을 받고 돌아갔으며 지금도 남모른 수고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안상의 어려움으로 자세한 사역내용을 알릴 수 없는 관계로 재정적 지원이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물질로 동참하실

분은 '사랑의 집'(873-2570)으로 연락 주십시오.

* 겨울 중국어 연수반

중국어문선교회 산하 중국선교훈련원은 동계방학을 맞아 6주과정의 속성 중국어 연수반을 개설하고 원생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93년 1월 11일 ~ 93년 2월 20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뒷면의 광고를 참조하십시오.

* 기념예배 및 총회

중국어문선교회의 창립 3주년예배와 총회가 12월 7일(월) 오후 7:00 방배동 이수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 제1회 사역자 훈련세미나

중국어문선교회는 93.1.11~1.29과 93.2.15~2.26 두차례에 걸쳐 '사역자 훈련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 세미나는 교회 및 선교단체를 섬기는 사역자들 중 내근 사역자(사무직, 연구직, 문서사역 등)를 주요대상으로 하여 실시되며 이들의 영적성숙과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강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후면 광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함께 하는
헌신자(간사)를 모십니다

주수할 것은 많으나 주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중국어문선교회는 중국선교의 여러 사역 중 특히 中國語文과 관련된 사역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역이 한국교회의 효과적인 중국선교와 중국교회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중국복음화의 위대한 사역에 간사로 헌신하기 원하는 분들은 기도해 보시고 전화 또는 우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분야: 출판부, 번역부, 연구부, 교육부, 선교부, 중국선교훈련원, 총무부, 인천지부(교육담당)

* 기 한: 1993년 1월 9일까지

* 허 입: 1993년 1,2월에 실시하는 사역자훈련 세미나에 참가한 뒤 소정 절차를 거쳐 간사 또는 협력간사로 허입함

* 연락 및 문의처: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201호
(TEL- 594~8038, 533~5497)

中國語文宣教會

편집후기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우리의 한해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바쁠수록 정도를 잃지 맙시다. - 혜

모처럼 중국현지교회 지도자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글을 실었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기도의 제목으로 살아

있기를... - 석

주님의 일엔 분투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면서...

함께 격려하며 주님을 뒤쫓는

우리가 되기를... - 준

송금 온라인 번호

수 취 인 : 중국어문선교회 박성주

국 민 은 행 : 008-01-0454-178

상업은행 : 104-05-106251

조 홍 은 행 : 325-1-062234

중소기업은행 : 002-01-0154-683

우체국 : 010892-0027775

외 환 은 행 : 099-19-18518-7

신 택 은 행 : 30907-2405608

제 일 은 행 : 378-10-063302

지로번호 : 7602362



선교사 후원

수 취 인 : 정서영

제 일 은 행 : 378-20-128961

주 호 은행 : 350-06-112337

국 민 은 행 : 084-01-0273-191

수 취 인 : 박애린

제 일 은 행 : 378-01-067724

한 일 은 행 : 081-167297-12-001

국민은행 : 084-01-0283-633